

해경 폐지... 공직 민간 영입 확대

차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통해 직접 사과

조직개편으로 국가개조... 안전 총괄 국가안전처 신설
고위공직자 10년 이력공시제... 유관 단체장 임명 배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34일 만에 국민들 앞에 내놓은 첫 공식 사과다. 박 대통령은 이날 24시간 담화문을 펼치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관련기사 3·4·5면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같은 불행은 막기 위해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공직에 민간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제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고 후속조치로 인명구조 업무에 실패한 해경의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몸집만 커졌을 뿐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예산 확보 미흡과 인명구조 훈련 부족 등 구조제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에서

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어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대폭적 개편도 예고했다. 안행부의 경우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은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내용까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무원 부패와 민관 유착 해소를 위한 공무원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선 △필요 시 특별감사제 실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bomnal@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구직단념자 사상 최대 '한국경제의 덩'

지난달 37만명,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경기불황→취업난→내수 활력저하 악순환

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실제 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취업 의욕을 잃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 수가 37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여명,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는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 중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적당한 일자리가 없거나 자격이 부족하다는 생각 등으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으로, 작년까지 1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30만명대로 경종 뛰어 올랐다.

구직단념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달 취업

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서 수강한 취업준비자(56만5000명)도 1년 전에 비해 7.6%나 줄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5.4%로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568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1000명 증가했다. 두 달째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8만6000명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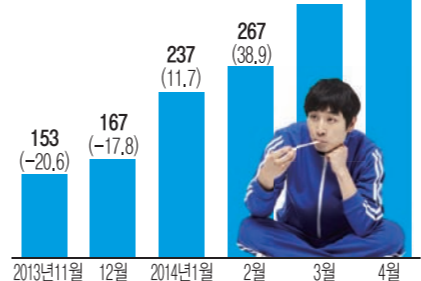
정부는 이 같은 '고용 혼풍'을 최근 완만한 경기회복세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률 호조에 취업 의욕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면 본격적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

한다. 일할 능력은 있으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불안이 심화되면 가계소득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내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불황에 취업난이 가중돼다 시 경기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장이 담보되지 않은 고용 증가는 1인당 생산량을 현저히 떨어뜨려 생산성 증가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는 소비와 생산 주체인 20~30대 청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4월 20대 실업률은 10.2%로 지난 2월(10.9%), 3월(10%)에 이어 3개월째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높고 있는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단위: 천명, ()안은 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도 지난달 48만명에 육박했다. 작년 4월보다 무려 22.6% 올라간 수치다. 같은 기간 취업의 문턱도 넘지 못한 취업 무경험 청년(20~29세) 실업자 수는 4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4% 늘었으며 전체 취업 무경험 실업자(6만6000명)의 70%나 차지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취업에 연계된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학에서 기초교육뿐 아니라 기업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는 현장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진학률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알립니다

CSR, 기업의 위기대응 핵심전략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22일 상의 국제회의장서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대외위원회(위원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오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위기대응 핵심전략, CSR'을 주제로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스리(한국CSR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는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정통한 글로벌 및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코스리와 임팩트투자 컨설팅기업 MYSC가 공동 진행한 '2014 기업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사회적책임투자CSR 인터내셔널 설립자인 웨인 비서(Wayne Visser) 박사가 '위기관리 전략으로서의 CSR'을, 로지컬 매니지먼트 시스템사의 게이리 스키치(Geary W. Sikich) 회장이 'CSR기반의 위기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위기대응 전략으로서 CSR가 지니는 가치와 실천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2014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위기가 일상화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CSR을 어떻게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5월 22일 오후 2~6시
-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가문의 :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대외위원회 사무국
전화 02-799-6751~4, 이메일 csr.kosri@gmail.com

삼성생명 "믿음 깨진 맥쿼리" 투자자금 8000억 전액 회수

수익 부진 변액보험 자금 빼내 채권파킹 변칙거래에 등돌린듯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채권 자산거래와 파킹거래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기관 투자자인 삼성생명이 자금 회수에 돌입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맥쿼리자산운용에 일임한 채권 변액보험 자금 8000억원 규모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최근 맥쿼리운용의 채권운용 수익률이 부진한 데 따른 자금 회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10여개 운용사에 변액보험 자금 운용을 맡기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맥쿼리운용의 채권운용 수익률이 가장 안 좋게 나왔다"며 "이에 맥쿼리운용에 일임했던 자금들을 모두 빼 다른 운용사들에 일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한편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대형 기관투자자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자금 회수와 관련해 파킹거래 조사 장기화에 따른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채권 파킹거래'란 매매 확정이 이뤄지고 난 후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잠시 증권가에 맡겨 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변칙 거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맥쿼리자산운용이 ING자산운용 시절 당시 거래 증권사 간 채권 파킹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감사에 나선 바 있다.

실제 지난 1월 ING자산운용과 거래해 온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채권 파킹거래 부문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이 파킹거래 혐의에 따른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지만, 삼성생명과 국민연금 같은 대형 기관에서는 자체 컴플라이언스에서 변칙거래로 규정되는 파킹거래 혐의에 대해 엄격한 자체를 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Graphic NEWS

현대차 "굿" 5년째 총성도 1위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 총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자동차 부문 1위에 올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브랜드 조사기관인 '브랜드키즈(Brand Keys)'가 실시한 2014년 고객 총성도 조사에서 현대차는 포드와 함께 자동차 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렉서스, 지프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어 3위에는 스바루와 BMW가 선정됐으며 4위는 도요타, 5위는 제너럴

2014년 자동차부문 미국 브랜드 총성도 순위 현대차 1위



모터스(GM), 6위는 볼보가 각각 차지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삼성, 스마트워치 압도적 1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70%를 돌파하며 독주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티кс(SA)는 올 1분기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5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71.4%로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00만대의 스마트워치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52.4%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소니와 페블은

스마트워치 시장점유율 삼성 71.4%



각각 8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1.4%를 기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신동우 부회장 ▶ 박원갑 위원 ▶ 16

Biz 월요일 19~23일

커버스토리 '드라이브 스루' 전성시대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보폭 넓히는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통합산은·우리금융 민영화 등 진두지휘 朴 대통령 금융정책 기틀 마련...이론·시장 접목 탁월 평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주말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한다. 주말 가족 나들이나 알콩달콩 데이트는 포기한 지 오래다. 한 주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주말에도 출근해 할 일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1년간 계속되는 주말 출근에도 '월요일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너스레를 떤다. 금융위 직원들에게 위키홀릭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이 떠오르면서 이들은 지난해부터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우리금융 민영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 중심에는 정찬우(사진) 부위원장이 있다. 정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금융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금융정책 공약의 기틀을 짠 '경제브레인'으로 통한다.

그는 초기 금융연구원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외환과 국제 금융에 대해 연구했다. 이후 전남대 경영대 부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금융연구원에 복귀해 제2금융·서민금융·

가계부채 분야를 연구해 왔다.

지난 1년간 신재운 위원장을 보좌해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정 부위원장은 이론과 시장을 접목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통합산은 합병 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4대 핵심과제를 주도해 왔다.

또 신 위원장이 직(職)을 걸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도 적극 추진해 왔다.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도 성공적으로 매각됐고 경남·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이던 세금 문제도 해결됐다. 민영화 마지막 관문인 우리은행 매각 방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년간 끌어온 복은 과제의 마침표를 찍기 직전이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직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곳곳에 숨어 있는 '나쁜 규제'를 해결해야 하고 통일금융의 방향도 잡아야 한다. 오늘도 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직원들의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이유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롯데제과 지분 늘리는 신동주 (일본롯데그룹 부회장) 형제간 경영권 관련 관심 집중

신동주 (사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이 10개월째 롯데제과 주식을 사들이면서 동생인 신동빈 회장 회



롯데제과 주식소유현황

성명	보통주식	
	주식수	비율
롯데알미늄(주)	217,268	15.29
신경호	97,057	6.83
신영자	35,873	2.52
신동주	54,697	3.85
신동빈	75,850	5.34
최성원	21	0
최성현	15	0
롯데장학재단	123,576	8.69
(주)호텔롯데	45,670	3.21
롯데건설(주)	19,000	1.34
(주)롯데기획	46,462	3.27
합계	715,489	50.34



장과의 경영권 분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주 일본롯데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각각 310주, 260주 등 총 560주의 주식을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했다. 이로써 신 부회장의 롯데제과 보유주식은 5만4697주로 늘었으며 지분율은 3.85%가 됐다. 신동빈 회장

10개월간 매달 10억...제과 지분율 3.48%→3.85%

'신동주=일본' '신동빈=한국' 암묵적 공식 틀어져

의 지분율 5.34%(7만5850주)와의 격차는 불과 1.49%포인트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6월 롯데쇼핑-롯데미도과 간 합병에 따른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롯데제과 주식 6500주를 매입해 지분율이 4.88%에서 5.34%로 늘어난 상태다.

신동주 부회장이 롯데제과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다. 당시 신 부회장은 9억9700만원에 지분 643주(0.04%)를 취득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10억원어치의 롯데제과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신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기존 3.48%에서 3.85%까지 늘어났다.

현재 롯데제과 지분은 롯데알미늄(주)이 전체 지분의 15.29%인 21만 7268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장학재단 12만3576주(8.69%), (주)대흥기획 4만6462주(3.27%), (주)호텔롯데 4만5670주(3.21%) 등의 순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동주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한국롯데 경영권을 놓고

지분 싸움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부회장이 꾸준히 롯데제과의 지분율을 높임에 따라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됐던 '신동주=일본', '신동빈=한국'의 공식이 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롯데제과가 롯데그룹의 모태기업으로서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롯데제과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의 핵심부분이다.

또한 롯데제과는 지난 3월 기준 롯데쇼핑 지분 7.86%를 비롯해 롯데푸드와 롯데칠성의 지분을 각각 9.32%, 17.70%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롯데제과를 지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롯데의 다른 계열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롯데제과 관계자는 "신동주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중을 알 수 없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승예 기자 sysy@

취임 첫 성적표 마이너스... 김주하, 수익 개선 골머리

(NH농협은행장)

1분기 실적 350억 손실 판관비 늘어 구조 개선 필요 또 '인력감축' 카드 만지작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수익 개선 돌파구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1분기 실적에서 350억원의 손실을 냈다. STX 그룹 관련 출자전환 주식 손상차손과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영업으로 벌어들이 이익 가운데 판관비로 지출하는 비율인 총영업이익경비율(CIR)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익경비율은 영업으로 벌어들이 이익 가운데 인건비 등 판관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경영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농협은행의 이익경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65% 수준으로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평균이 50%대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올해 1분기에 전산망 분리, 보안시스템 구축작업 등 IT부문 개혁에 따른 경비 증가로 이익경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이에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영업이익을 상대적으로 올리거나, 인건비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했지만 농협의 특수성과 경기 악화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익경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 1인당 생산성과 비용 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의 체질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농협은행의 임직원 수는 1만 6000여명으로 1인당 생산성은 국내 은행 중 가장 낮은 1400만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김 행장이 비용 통제를 바로잡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점포 및 인력 감축, 즉 구조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초 350여명의 퇴직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익경비율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결국 만지작거리고 있는 또 다른 카드도 마른 수건 짜내기인 인력 감축이란 얘기다.

김 행장은 지난 2012년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2대 농협은행장에 취임했다. 198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후 줄곧 농협에서만 근무한 정통 '농협맨'이다. 이 같은 이력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다.

최근 NH농협증권 등 주요 계열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에 노조의 반발이 격해지자 김 행장이 직접 노조 지도부를 만나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선 판관비 대부분을 차

회 중 가장 낮은 1400만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김 행장이 비용 통제를 바로잡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점포 및 인력 감축, 즉 구조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초 350여명의 퇴직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익경비율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결국 만지작거리고 있는 또 다른 카드도 마른 수건 짜내기인 인력 감축이란 얘기다.

김 행장은 지난 2012년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2대 농협은행장에 취임했다. 198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후 줄곧 농협에서만 근무한 정통 '농협맨'이다. 이 같은 이력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다.

최근 NH농협증권 등 주요 계열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에 노조의 반발이 격해지자 김 행장이 직접 노조 지도부를 만나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선 판관비 대부분을 차



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이 유일하다. 때문에 원만한 거리를 유지했던 노조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김 행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 매출 15% 신약 R&D투자
- 글로벌 개량신약 국내 최초 개발
- 신약 후보 12건 글로벌 임상 시험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Global · R&D 선도
Hanmi 한미약품

공무원 사회 '정상화' 강조...2년차 국정운영 최대고비

차대통령 '세월호 참사' 담화 - 주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2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담화는 '국가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런 만큼 출범 2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 방안, 해양경찰의 해체 및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재정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해경을 해체기로 한 것은 이번 담화에서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무능한 공무원 집단은 언제든 하루아침에 퇴출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이어서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참사 34일째...눈물의 첫 직접사과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4월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

구조·구난 사실상 실패한 해경 해체
수사·정보기능 경찰청으로 이관
안전·해양 교통관제, 안전처로 통합
공무원 채취업 금지 3배 확대 등도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한 만큼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집중하게 된다.

또 해경 지휘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된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 및 기업의 정상화 = 공무원 사회 개혁은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방지책으로 먼저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제한 폭을 3배 이상 넓히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개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 선발을 확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나가는 등 기업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의중 기자 zerg@

◇전 국민 앞 첫 대국민 사과 = 박 대통령이 담화문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건 세월호 사고 이후는 물론 취임부터 지금까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 그간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故) 권혁규군,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된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양대홍씨 등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특검은 물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을 올린 셈이다.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 국가안전처의 역할이 대통령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가져와 통합관리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해경을 전격 해체하고 해경이 맡아 온 업무는 성격에 맞게 각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제 탓이오” 밤늦게까지 담화내용 다듬어

어제 명동성당 세월호 추모미사 참석
16일엔 유족들과 면담서 '특검' 밝혀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세 번 외쳤다. 18일 낮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서다. 내내 차분했지만 애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19일 아침,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섰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발표하는 담화였다. 그동안 간접사과는 여러차례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한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 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일 미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발표할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밤늦게까지 다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담화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고심이 많았다. 사고 형식을 놓고 ‘총선을 앞둔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전막 당사행을 결행했던 전래나 108배 등의 정신을 살려가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팽목항 현장에서 담화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분의 담화’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원전 세월즈를 위한 아랍에미리트(UAE)행이 붙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수습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담화 발표를 예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관들과 토론회를 통해 담화에 담긴 내용을 고심했다.

또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20여분간의 담화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대국민 위로와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사과를 담았다. 또 국가재난방재시스템 확립 등을 포함해 안전한 나라 만들기 구상도 언급했으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위한 공무원 신분 보장 예외 대상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확대, 순환보직제 제한 등 관련 개혁안도 제시했다. 담화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순서는 없었다. 윤필호 기자 beettebum@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시간을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탄생

시간을 초월한 듯,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가치처럼 최고의 맛과 품격으로 탄생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36.5도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오랜 전통을 간직한 블렌딩까지-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GOLDEN BLUE
The Diamond
슈퍼프리미엄 위스키

정교, 차분한 풍주는 진정한 위스키에 온전히 중 시그니처를 담고 있습니다.

원전 세일즈 때문에... 차, 결국 UAE행

(아랍에미리트)

국산 원자로 설치식 행사
세월호에 방문 취소했다
“국익 잃을 수 있다” 판단
오늘 1박2일 초단기 출국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현황	
주주	2009년 12월
규모	약 20조원(186억달러)
기준	한국형 원전 APR 1400 4기
지역	아부다비 서쪽 바라카 지역
건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기, 2017년 5월 준공 2호기, 지난해 4월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타설 3, 4호기, 올 상반기 중 콘크리트 타설
아랍에미리트(UAE) 기대효과	
직접수출효과 (2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나미 대응차 100만대 A380급 에어버스 62대 30만 유조선(1.1억달러) 180척
후속수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년간 원전 연료비, 운영, 정비 등 200억 달러
고용창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인원 11만명(사업기간 1만1000명 고용효과)
정성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원전 인지도 제고 해외진출 가능성 향상 세계 6대원전수출국 원전산업 강국 이미지 제고 한-UAE간 장기 파트너십 형성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취소했던 아랍에미리트(UAE)를 19일 방문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하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할 예정”이라며 “원전 1호기 설치 는 우리 기술로 제작된 원자로의 세계 무 대 데뷔”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UAE와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계

기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등 여타 서비스 산업 진출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

며 “UAE와는 중요한 기술 수주가 많고 UAE 정부는 그간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 히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UAE 원전사업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원전 강 국을 제치고 따낸 186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원전 플랜트 사업이다. 이곳에 총 4 호기가 건설되며, 1호기는 2017년 5월 준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원전은 짓는 것부터 사후처리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는 사 업인 만큼 양국의 오랜 동반자 관계를 구 축하는 데도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UAE 측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요 청해 왔고 이번엔 불참하면 중요한 국익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려운 국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후 UAE 측 에 박 대통령의 방문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뒤 대신 윤상식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UAE 측은 박 대통령의 방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제가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힐 정도 로 섭섭해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원자로 설 치식 행사 방문을 결정함에 따라 당초 불 참하려던 UAE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왕 세제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준공 후 장기간에 걸친 운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우리 측은 60년간 200억 달러 규모의 운 영사업 계약을 놓고 UAE 측과 협상을 진 행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번에 60년 계약을 하기 어려워 초기 계약기간과 범 위 를 놓고 협상 중이다”며 “이번 방문이 중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기재부, 재난예산·트라우마 대책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조4000억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 시작

내일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논 의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19일 한 달간 의 일정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잇달아 상 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19대 국회 후 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국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 고 지원 대책을 보고받았다.

현 부총리는 “신속한 사고수습과 구조 활동을 위해 소요경비는 원래 편성된 예 산을 활용해 즉시 집행하되, 기 편성 예 산이 부족할 경우엔 아·전용 및 예비비를 통 해 총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재해대책 을 위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각 1조 2000억원으로, 총 2조4000억원이라고 설 명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원인자 부담원 칩’에 따라 세월호의 선사인 정해진해운이 부담할 경비를 정부가 지급한 경우 구상권 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부상자 및 희생자 가족 등에 긴 급생계비 월 108만원(4인 가족 기준), 생활 안정자금 253만원(4인 가족) 등을 지원하

고 있으며, 집중 수색구역 내 피해어민에 겐 1가구당 생활안정자금 85만원을 지급 하고 수색구조에 참여한 어선 185척엔 유 튜비 등을 중간 정산해 지원하겠다고 전 했다.

현 부총리는 또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 조8000억원이나 실제로는 참사 이후 안전 행정부 특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 교부금 1456억원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을 총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예산 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희 생자 가족 및 생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및 심리치료대책, 희생자 보상 및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분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 을 불러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본회의에선 국정 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의 이를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 장, 상설특위위원장도 선출한다는 계획이 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 은 26일 국회의부장을 각각 내정한다.

김미영 기자 bommal@

‘앵그리맘’ 캐스팅보트... ‘담화’로 표심 돌려 서울까

‘세월호 무능정부’ 떨어진 민심
국정운영 동력 항배 좌우할 듯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3.2대 1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지난 18대 대선 이후 1년 6 개월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로, 박 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이 강하 다.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의 동력이 될 수 도 있고,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여론은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아직까지도 가시 지 않는 세월호 사고 여파다. ‘앵그리맘’으 로 대변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비슷한 연령대인 40대가 대거 부동층으로 이동, 이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대한민국 담화문을 계기로 여당에 등 돌린 민심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가 큰 관건거리로 떠올 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과 새 누리당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 이후 최저치 를 기록 중이다.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 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 과하고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대대적 혁신 작업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 를 국민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나에 선거의 승패를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 이다.

김익중 기자 zerg@



어색한 만남 정몽준(오른쪽)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시장기 국민생활체육동산대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서 ‘계란 봉변’ 당한 안철수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 사과
수심명 항의에 50분간 곤욕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주 말 동안 광주를 방문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으로 요동치는 민심 달래 기에 나섰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 문했지만, 무소속 강은태·이용섭 후보 지지 자들의 거센 항의에 곤욕을 치렀다.

특히 방문 당일 저녁 지역 방송사와 인 터뷰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수심명의 항의 대열에 막혀 50여분간 대치했다. 이들은 안 대표가 탄 차 안으로 계란을 던지기도 했으며, 또 차량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

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안 대표는 이 같은 반발과 관련해 이날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리 충분 히 설명드리고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 하다”고 사과했다.

이 때문에 방문 이틀째인 18일에는 첫 일정이던 무등산행을 취소하고 서구 상무 시민공원을 찾기도 했다. 또 마지막 일정 으로 한 호텔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지 역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원로 들은 “반대쪽 이야기도 귀담아듣고 용기 를 잃지는 말라”고 당부하며 “조심을 잃지 말고 깨끗하게 가시라”고 격려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 곡 지정 논란으로 반쪽짜리 행사가 된 국 가보훈처 주도의 5·18 기념식에 참석하 지 않았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1시간 속성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U.S./유엔제이 번역
한국판 | 199쪽 | 1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 youngsh@etoday.co.kr

금융위, 외환은행 신용카드 부문 분사 안전 상정 하나·외환銀 통합 시너지 빛 보나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에 인가작업 제동 분할 연기 실무 작업은 모두 마무리 21일 통과 땀 곧바로 시작

하나·외환 합병 첫 단추인 외환은행 카드분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목록부담으로 일관하던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정례회의에 안전을 상정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1

일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신용카드 부문 분할' 안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카드분사에 대한 안전을 상정했다"며 "그러나 통과 여부는 회의를 개최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당국의 입장은 신중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이후 '목록부담'으로 일관하던 금융위에서 안전을 상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외환은행에게는 큰 수확이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당국에 카드사업 분사를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올해 2월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아 3월 말까지 카드사업을 분할해 4월 외환카드를 설립하고 연내 하나SK카드와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인가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외환은행측은 외환카드와 고객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고는 주장했지만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내에서 운용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위는 예비인가 안전 상정을 미뤘고 외환은행 역시 카드사업 분할 기일을 당초 3월 말에서 5월말로 연기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도 카드분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환은행 카드분사 승인을 계속 지연하면서 간접적으로 김 행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내외부 잡음에 시달리면서 하나·외환은

행 간의 시너지 기대감도 점차 희석됐다. 실제 지난달 외환은행은 보유중인 하나금융블록딜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1차 달에 실패했다. 그다음날 바로 계약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외환은행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오는 2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전 통과되면 외환은행은 본격적인 분사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분할기일이 오는 31일이기 때문에 오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안전이 통과되면 일정에 맞춰 바로 분사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무적인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LIG손보 본입찰 오늘 마감 가격·대주주·노조 '가시밭길'

KB금융·롯데 등 5-6곳 참여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IG손해보험 매각 본입찰이 19일 마감된다. KB금융지주, 동양생명, 롯데그룹, 자베즈파트너스, 중국 푸싱그룹의 참여에 예상된다. 실사를 중단한 MBK파트너스는 본입찰 참여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LIG그룹과 매각주인사인 골드만삭스는 예비입찰에 참여한 10여개사가 가운데 이들 회사를 포함해 6개사를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할 바 있다. 업계는 이달 말에 최우선협상대상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LIG손보 오너 일가 16명의 지분(20.96%) 가운데 구분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총 9명의 지분을 포함한 19.83%다.

이번 LIG손보 매각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입찰 가격이다.

지난 예비입찰 때 자베즈파트너스가 6000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제안했고, 그 뒤를 이어 롯데그룹, 동양생명, 중국 푸싱그룹, MBK파트너스 순으로 5000억원대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는 지난 입찰 때 인수 후보자들 가운데 4200~4300억원의 가장 낮은

LIG손해보험 매각 본입찰 쇼트리스트

업체	예비입찰 제안가	노조 의사
KB금융지주	4200억~4300억	협상 용의있음
동양생명	5000억	반대
롯데그룹	5000억	반대
자베즈파트너스	6000억	반대
중국 푸싱그룹	5000억	반대
MBK파트너스	5000억	반대

※ 출처: 업계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매각은 가격 외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

인수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5년간 고용보장, LIG 상호 3년 유지, 핵심관계자 임원직 유지 등 요구조건이 너무 많다"며 "결국 LIG그룹 대주주의 요구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는지가 인수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강성 노조도 인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LIG손보 노조는 김병현 사장과 경영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일부 인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했다. 노조는 KB금융을 제외한 롯데그룹, 사모펀드, 중국 푸싱그룹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임남수 LIG손보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금융에 대해서는 협상을 받아 들일 용의가 있다"며 "롯데그룹 등이 인수할 경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구귀 기자 kkk@



신세계 '씨티아시아나카드' 14년 장수 비결은?

신세계 씨티아시아나 카드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혜택으로 주목받는 상품이다.

이 카드는 2001년 2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급되고 있는 '장수카드'로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을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에서는 1000원 당 1마일의 높은 적립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에서도 월 이용액이 20만원 이상이면 1000원당 1마일(20만원 미만 시 2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준다.

이와 함께 쇼핑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3~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쿠폰이 제공되며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는 2~3개월,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에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회비가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실버카드 3000원, 골드카드 5000원, 플래티늄은 1만원으로 이는 초년도 이후에는 면제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인 소비패턴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카드는 저렴한 연회비에 단순한 조건 충족을 원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카드"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ji@

다시 뛰는 카드 3사... "불법은 안돼요"

KB국민·롯데·NH농협 영업재개

금융당국 마케팅 경쟁 심화 우려

불법 모집 신고포상금 5배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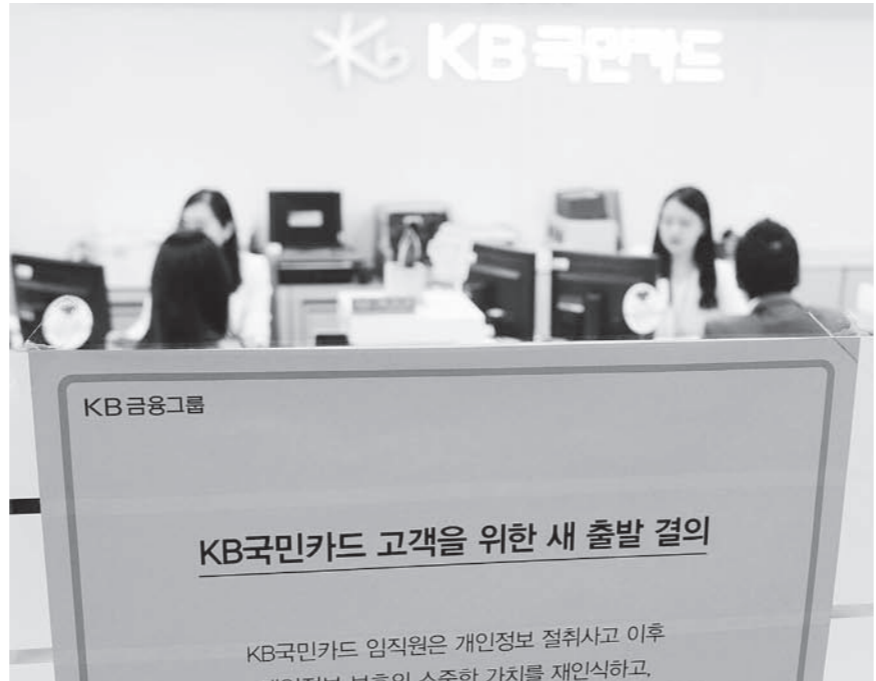
정보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던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지난 17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간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금을 최고 5배로 높이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 3사는 지난 17일 부터 영업을 재개했지만 마케팅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TV·극장용 브랜드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KB국민카드는 이번 달 25일경 이용실적, 한도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신용카드 '가온카드'와 쇼핑업종에서 5~7%를 할인해 주는 '정체카드'를 내놓는다.

또 신용카드 고객대상 주요 10대 생활권의 업종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금서비스 이용수수료를 2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NH농협카드는 19일 해외전용 체크카드인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와 횟수



사상 최대의 고객 정보 유출로 업무정지를 당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7일 3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19일 오전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영업점을 찾은 시민들이 카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에 제한 없이 해외 가맹점 이용액의 2%, ATM이용액의 0.5%가 무제한 캐시백 되는 카드다.

롯데카드는 당장 신상품 출시보다는 기존 회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고객 충성도를 꾸준히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금을 제공하는 카드 불법 모집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카드불법 모집 신고포상금도 현재의 최고 5배로 높여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하면 50만 원,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박예리 기자 ellee@

저축銀 인수한 대부업체 '자산 축소' 고민

금융당국 "잔액 40% 줄여라"

사실상 신규 영업 중단해야

저축은행 인수로 대부업 자산을 줄여야 하는 대부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향후 5년내 대부잔액 40% 축소를 내걸면서 사실상 신규 대부업 대출을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1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그룹(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은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향후 5년간 대부자산 8000억원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러시앤캐시는 금융위원회의 인수 승인 이나 면서 다음달 부터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저축은행 상호는 '오케이저축은행'으로 정했다.

웰컴크레디트라이언(웰컴론)이 인수한 에

신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웰컴론도 대부잔액을 향후 5년간 2000억원 가량 감축해야 한다.

전저축은행과 네오인크레디트대부를 자회사로 둔 일보계 금융회사 J트리스트 역시 케이제이아이대부(원더풀론)를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대부업 자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들 업체가 자산을 40%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신규대출 취급을 거의 하지 않고 만기도래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만 반영해야 매년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대부업 이용고객중 저축은행과 신용등급이 유사하고 연체 없는 우량고객을 대환대출 혹은 대출연장을 통해 저축은행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 이다.

박예리 기자 ellee@

풍천임씨 동지공파 종중 임시총회 개최공고

일 시 : 2014년 5월 25일(음 4.27) 오전 11:00시
장 소 : 동지공파 소종계 회관 (양주시 율정동 177-9)
안 건 1. 소송 원고 소송비 보전
 2. 토지 보상금 분배
 3. 창고 신축 승인
연 락 처 : 010-2264-4305
공 략 기 간 : 2014년 5월 19일 ~ 2014년 5월 25일

2014년 5월 19일

풍천임씨 동지공파 종중 회장 임동빈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이성용의 화제의 신작!

월세의 신

이성용 지음 | 248쪽 | 13,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수익형 부동산
종짓돈 500만 원에서 10억까지 리얼 가이드라인!**

읽을 때만 이해되고 적용 못하는 책 말고,
해결방안은 내 문제로 남는 책 말고,
실전 노하우로 진짜 부자가 되는 책!

30세 대한민국
최연소 혁신 CEO
MBC 경제대자본 출연
MBC 불만채널 참여
SBS 부동산채널출연

특·별·부·록

수익형 부동산
최신 정보 수록

특·별·부·록

경매정보 사이트
우리속선
20% 할인권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메리츠화재 즐거운 보험 캠페인
① 합쳐서 할인해주는 멀티디스카운트

고객을 위한 즐거운 보험은 계속됩니다



합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즐거운** 보험

(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Basket**

✓ 멀티디스카운트: 보장, 저축, 연금, 자동차 결합 가입시 0.5~1.5% 보험료 할인

▶ 고객맞춤 보장설계

- 고객 별 위험에 따라 맞춤 보장설계
- 저축 및 연금보장을 통한 든든한 노후준비

▶ 현물보상 솔루션

- 실손의료비 보장은 물론, 24시간 간병인 지원
- 암진단부터 완치까지 관리해주는 암케어 패키지

본 상품의 다양한 특약사항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566-7711

휴면보험금 안내 02-2084-7912
보험사기 신고센터 1588-3311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1286호 (2013.5.27)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제외)

대한민국 1호 **즐거운** 보험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1922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회사입니다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사상 최고치

1분기 생산량 108만8902대... 지난해보다 6.9% 증가 중국 공장 신설·유럽 인기 여파... 올 450만대 넘길 것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이 연말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간 45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분기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은 108만8902대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이자 지난해 1분기 해외 생산량 101만8332대보다 6.9% 증가할 수 있다.

회사별 올해 1분기 해외 생산량은 현대차가 75만1644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10.8% 증가한 33만7258대를 해외에서 생산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증가는 중국의 영향이 컸다. 현대차는 올해 초 중국 3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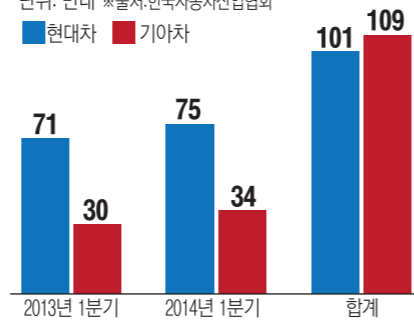
을 증설하며 생산규모를 연간 생산 30만대에서 45만대로 확대했다. 또 3월부터 쓰촨 상용공장도 본격 가동했다. 기아차 역시 지난 2월부터 연청의 중국 3공장을 신규 가동하며 해외 생산량을 크게 끌어올렸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생산량을 늘리면서 1분기 현지 생산량은 43만5585대로 전년 동기 39만9536대보다 9.0% 늘었다. 향후 현대차의 중국 4공장이 준공되면 현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 현지 전략 차종인 현대차의 'i10'과 기아차의 '씨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유럽 지역 공장의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유럽으로 수출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추이



하는 현대차 터키 공장의 1분기 생산량은 4만11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21.8%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 공장은 지난해 중순 연간 생산 10만대 규모에서 20만대로 증설했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은 같은 기간 8만6100대를 생산,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다.

반면 현대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LF쏘나타'의 양산 준비 영향으로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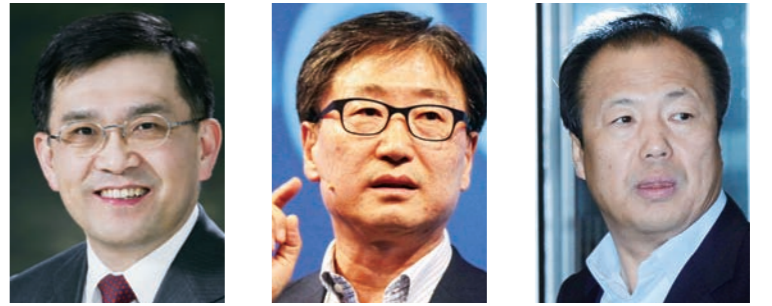
생산량(9만9710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해외 생산규모는 450만대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외 공장의 증설과 함께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경기가 호전되는 것은 현대기아차에게 호재다.

특히 다음달 'LF쏘나타'가 미국에 출시되면 현지 생산량은 크게 될 전망이다. 쏘나타는 미국에서 2012년 이후 매년 30만대 중반대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차대기 효과로 전년보다 소폭 준 32만여대가 판매됐다. 올해 'LF쏘나타'가 미국에 출시되면서 판매 상승세는 다시 회복할 것이 확실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신형 제네시스와 'LF쏘나타'가 신차 효과를 내며 유럽에서는 하반기 신형 'i10'을 선보인다"며 "판매 증가 영향으로 해외 생산량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 윤부근 CE부문 사장 | 신중균 IM부문 사장

'최고 몸값' 삼성 CEO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월급여 1억7400만원으로 1위 윤부근·신중균 나란히 3·4위

추석 상여금(100%), 1·3분기에 지급되는 상·하반기 성과급이 더해진다. 부사장 직급의 월 급여는 9000만원대, 전무급은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5·10위권에는 LG그룹 소속 CEO들이 많았다. 박진식 LG화학 부회장이 매월 9700만원을 받아 5위에 올랐고,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9500만원,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 9400만원, 조준호 LG 사장 9000만원,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8100만원,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6300만원 등 순이었다. LG그룹의 부회장 직급은 9000만원대, 사장급은 800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SK그룹의 경우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의 월 급여(6200만원)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그룹 내에서도 기업별 임금체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전문경영인 중 가장 많은 '몸값'을 받는 CEO(최고경영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올 1분기 받은 보수 중 성과급,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가 5억2200만원으로, 이를 3개월로 나눈 월 급여는 1억7400만원이다.

두 번째로 월급이 많은 CEO는 현재 SK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김장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SK이노베이션 회장)이다. 김 의장은 SK이노베이션에서 매월 1억4700만원을 받았다.

월 급여 순위 3, 4위도 모두 삼성전자에서 나왔다. 윤부근 CE(소비자가전) 부문 사장, 신중균 IM(IT·모바일) 부문 사장이 각각 1억4400만원을 수령했다. 신 사장의 경우 올 1분기 보수 총액이 96억6400만원으로 '소득 킵'에 올랐지만 대부분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이었다. 삼성전자 임원들의 급여체계는 통상 월 기본급에 상·

한편, 세계 순위 2위, 5위인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의 CEO들은 삼성, SK, LG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퇴임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월급은 56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하인철 고문은 5800만원의 월 급여를 수령했다. 장효진 기자 js62@

LG화학 '분리막 특허' 배터리 증가 日에 수출

우베막셀과 SRS 기술 라이선스 계약

LG화학이 배터리 중추국인 일본에 독자 개발한 분리막 관련 특허기술을 수출했다.

LG화학은 최근 일본의 전자재료 생산 기업인 우베막셀(Ube Maxell)과 독자 개발한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관련 특허에 대해 유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베막셀은 일본 우베(UBE)그룹의 자회사인 우베흥산(宇部興産)과 히타치(Hitachi)그룹의 자회사인 히타치 막셀(Hitachi Maxell)의 합작회사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분리막 코팅분야의 글로벌 선두 업체 중 하나다.

특히, SRS 기술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을 코팅해 열적, 기계적 강도를 높여 내부단락을 방지하는 기술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기술이다. 2007년 국내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2010년 미국, 2012년 중국에 이어 올해 유럽과 일본까지 특허 등록을 완료, 세계 주요 2차전지 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LG화학은 전 세계의 관련 업체로부터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공개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를 유상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LG화학은 전자재료분야의 글로벌 기업 우베막셀과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물론, 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향후에도 특허 사용을 요청하는 업체와 별도 협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 특허를 개발할 것"이라며 "배터리 분야의 특허 표준을 선도하며 수익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기아차, 글로벌 누적판매 3000만대 눈앞

자동차 생산 52년 만에 '프라이드' 가장 많이 팔려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 3000만대 돌파가 임박했다. 기아차는 4월 말 기준 누적 판매 2993만대를 달성, 5월 중 3000만대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의 누적 판매 3000만대 기록은 1962년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3륜 화물차인 'K-360'을 생산·판매한 지 52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기아차는 2003년 누적 1000만대를 기록한데 이어 7년 뒤인 2010년 누적 2000만대를 돌파했다. 3000만대 돌파는 2000만대 달성 이후 불과 4년만에 이뤄졌다.

기아차가 지금까지 판매한 3000만대는 'K5(전장 4845mm 기준)'를 일일로 늘어놓을 경우, 우리나라 최장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416km)를 175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에 달한다. 지구 둘레로는 3.6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와 맞먹는다.

모텔별 누적 판매는 1987년 출시한 '프라이드'가 올해 4월 말 기준 346만대로 가

장 많이 팔렸다. 1993년 출시한 승용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31만대), 2002년 출시한 중형 SUV '쏘렌토'(202만대)가 뒤를 따랐다.

기아차는 2000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면서부터 크게 성장했다. 200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체 판매량의 4분의 3에 달하는 2259만대가 판매됐다. 1998년 법정관리에 돌입했던 기아차는 경영 정상화에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2년 만인 2000년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전자, 20만원대 보급형 LTE 스마트폰 'LG F70' 출시

LG전자가 21일 국내 최초로 20만원대 보급형 LTE 스마트폰 'LG F70'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3개 통신사를 통해 동시 출시되는 LG F70은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킷캣을 지원한다. LG F70은 4.5인치 IPS디스플레이와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2440mAh 대용량 축탈식 배터리를 장착했다. 사용자가 설정한 본인만의 노크 패턴으로 화면을 켜는 '노크코드', 이어폰을 꽂으면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되는 '플러그앤랩' 어떤 화면에서도 쉽고 빠르게 메모할 수 있는 '퀵메모' 등 차별화된 UX(사용자경험)가 탑재됐다. 사진제공 LG전자

전경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연 9500억원 급증”

안행부에 '국내 법인도 공제·감면 허용' 건의

작년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연 9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은 '개인'으로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법인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징수된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법인의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로 2015년부터 연 9500억원 가량이 기업에게 추가 부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12년 16만개 법인의 국내 공제·감면 세액 9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10%를 추산한 것이다. 추가 부담 액수로 추정되는 9500억원은 2012년 기준 법인인 지방소득세 4조5000억원

과 비교해 21% 가량 차지한다.

전경련이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268곳 중 33.6%는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담보다 "더욱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54.5%는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경련은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논의 기간과 기업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특법은 지난해 11월 15일 의원발의 후 1달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가결됐다.

이에 지난 4월 전경련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 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가 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외국기업들이 이를 정책리스크 사례로 받아들이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종합도로 기업 '모바일용 페인트' 공략

삼화·노루페인트 해외 계열사 매출 호조... KCC도 진출 논의

종합페인트 제조사들에게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모바일용 플라스틱 페인트가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국내 모바일 기기 제조업의 실적 호조가 국내 페인트 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화페인트의 해외 계열사 삼화도료베트남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 285억원, 영업이익 9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각각 435%, 612% 급증했다. 삼화페인트는 국내 5대 종합도로사 중 가장 먼저 모바일용 도로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2010년 10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해 휴대폰용 도로 중심의 플라스틱용 페인트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이 베트남 계열사의 수익이 급증하는 것은 삼화페인트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노루페인트도 2012년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해 모바일용 도로사업에 첫 걸음을 뒀

다. 해외 계열사 노루베트남은 지난해 36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순이익은 2억2400만원으로 흑자를 실현했다.

회사 측은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업체의 모바일용 페인트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CC도 현재 모바일용 페인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체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용 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어 향후 진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국내 페인트사들이 건설경기 약화, 조선업계 불황으로 수익성 하락을 피할 수 없자, 모바일 도로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 산업의 특성상 교체 수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모바일용 도로의 단가가 높아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현대미포 노사 '위기극복 실천결의대회' 열어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19일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기본가치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울산시 동구 본사에서 열린 실천결의대회에는 최원길 사장과 강원식 노조 위원장 등 1500여명의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 대표는 공동결의문에서 △고부가가치 선종 건조로 회사발전 및 고용안정 보장 △기초질서 확립·안전사고 예방으로 공정준수 및 품질 향상 등을 담았다.

또 △노사불이(勞使不二) 정신계승 △협력사 동반성장 △지역사회 발전기여 △

기본과 상식을 중시하는 의식개혁 문화 추진 등 4개항에 뜻을 같이했다.

최 사장은 "올해는 불황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하나 된 의지와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안전과 품질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을 준수해 마부위침(磨釜爲針)의 각오로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회사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가 솔선수범해 영업, 안전, 품질 향상 등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백화점 새 효자상품 ‘명품 시계’를 잡아라

1인 객단가 1000만원 웃돌고
10억대 ‘위버 럭셔리’ 제품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브랜드 유치·매장 확대하고
‘워치 페어’ 열며 마케팅 강화

10억원대 ‘명품’ 시계가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다. 웬만한 집 한 채 값을 뛰어넘는 시계를 선택 구입하는 위버 럭셔리(uber-luxury)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백화점들은 “초고가 시계를 구입하는 고객의 구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입을 닫고 있다. 그렇지만 1억원 이상의 초고가 시계는 브랜드별로 연간 5대 이상씩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판매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커지는 명품시계 시장… 깜짝 놀랄 ‘그루밍족’ 씬스미 = 현대백화점 명품시계 매출은 2012년 26.3%, 지난해 31.5% 각각 성장했다. 올해 4월까지 매출도 전년 대비 28.6% 늘었다.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역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해외에선팅 최승수 바이어는 “과거 예뻐 수요일만 인기를 끌었던 고가의 프리미엄 시계가 최근 4-5년 전부터 20-30대 젊은 남성층들의 멋내기 아이템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프레스티지뷰티팀 이재준 바이어 역시 “최근 비즈니스 캐주얼 보편화에 힘입어 직장 남성들은 다양한 착용에도 어울릴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클래식 시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품시계 인기에 대해 “한국 명품시장이 성숙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있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명품 시장은 뷰티에서 잡화, 의류를 거쳐 시계·주얼리 순으로 성장한다”며 “남과 구별짓기를 원하면서 너무 겹겹으로 로고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명품 소비자들이 최근 고가 시계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계의 객단가는 점차 올라가는 추세다. 백화점들은 명품시계 고객 객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기준 1인당 1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명품시계로 분류하는 기준은 1000만원대로, 최근에는 1억원을 넘는 제품은 물론 10억원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통계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3000만원대 이

상 시계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업계 경쟁 치열 ‘바잉 파워 잦다’ = 이같은 명품시계 열풍에 주요 백화점들은 속속 매장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 이스트 1층에 있던 화장품 브랜드를 웨스트로 옮기고, 대신 ‘워치존’을 꾸렸다. 83㎡ 규모 공간에는 벨&로스, 파넬라이, 보메&메르시에, 제니스 등 신규 브랜드와 기존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등이 자리잡았다. 다음달 바세론콘스탄틴이 매장을 열면 갤러리아명품관은 기존 파텍필립, 오데마피게, 브레게와 함께 4대 명품시계 라인업을 모두 구축하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에비뉴엘 2층 전체를 명품시계 특화층으로 꾸렸다. 지난해에만 바세론콘스탄틴, 브레게, 블랑팡, IWC 등이 부티크를 새로 냈다.

신세계백화점은 2011년 본점에 바세론콘스탄틴, IWC, 예저르쿨트르, 리스나르네, 자케드로를 새로 여였다. 2012년에는 강남점에 IWC, 바세론콘스탄틴, 예저르쿨트르, 랑에 운트 죄네 등을 추가했고 올해 초에는 센텀시티점에도 해리윈스턴, 위블로, 제니스 매장을 새 단장해 오픈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에 로저드브, 파넬라이 부티크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리뉴얼한 무역센터점에도 해리윈스턴, 오데마피게 등 16개 명품브랜드를 모아 강남 최대 규모 시계 매장을 꾸렸다.

행사도 이어진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압구정본점 행사를 마치고 25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보름간 ‘워치 페어’를 진행하고 있다. 22개 브랜드가 참여해 500억원 규모, 600여개 상품을 전시하는 업계 최대 규모다. 갤러리아명품관에서는 27일까지 명품시계·보석 공간 ‘마스터피스존’에서 ‘오프 올룰레리(Haute Horlogerie) 컬렉션’이 열린다. 파텍필립, 예저르쿨트르, 가르띠에, 브레게, IWC 등 12개 브랜드가 참여해 250여개 제품, 450억원어치를 선보인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18일까지 제5회 ‘에비뉴엘 워치&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450억원 규모 컬렉션을 선보였다. 가르띠에에는 올해 스페셜에디션인 ‘발롱블랑드 가르띠에’와 ‘푹튀튀치’, 불가리는 세계 최초로 ‘옥토 솔로렘포’를 공개했다.

명품시계 열풍에서 한 발 비껴나 있었던 AK플라자도 가세한다. AK플라자는 4대 명품시계로 꼽히는 브랜드 매장이 한 곳도 없으며, 하이엔드급 브랜드 부티크도 없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5월 말부터 예경그룹 60주년을 기념해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등의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단독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품시계 수입사 한 관계자는 “시계는 주얼리와 함께 백화점에 판매되는 명품 중 가장 위버럭시리를 겨냥하기 때문에 (일점 과정에서) 백화점과 고객의 바인딩 파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다람 기자 zing@

올여름 아웃도어 ‘소재’보다 ‘디자인’

가능성은 기본 다양한 스타일 출시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패션성 승부



컬럼비아 ‘쿨러 캐치 크루’ 티셔츠



마모트 40주년 기념 티셔츠

아웃도어 업계 디자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기능성 소재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벌였지만 까다로워지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업체들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여름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기능성 소재 중심의 신제품이 중심을 이뤘다면, 올해는 다양한 색상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 많아졌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는 시원함이 오래가는 쿨링 소재를 적용한 ‘쿨러 캐치 크루’ 티셔츠로 여름을 공략한다. 이 제품에 적용된 쿨링 소재 ‘유니프리즈 제로’는 컬럼비아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소재에 보이는 블루링이 땀이나 수분에 닿으면 즉각 반응해 옷감의 온도를 낮춰 시원함을 선사한다.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스타일도 대폭 다양화했다. 스포티한 디자인의 라운드넥, 브이넥 티셔츠 스타일을 늘렸다. 회사 측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수연 마케팅 총괄 이사는 “지나해 유니프리즈 제로의 성공적인 론칭으로 올여름 유사 제품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다”며 “올해엔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디자인을 보강, 쿨링 소재의 강자로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모트는 브랜드 탄생 40주년을 맞아 마모트의 헤리티지가 담긴 개성 있는 프린트와 세련된 색상이 적용된 마운틴 티, 토포스 티, 마모간다 티, 섀넌 티, 총 4종을 선보였다.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기본 라운드넥 티셔츠로 제작돼 패밀리를, 캐주얼 연출이 쉬우며 일상생활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 이너웨어로도 두루 활용할 수 있다.

라푸마도 첨단 기능성 소재에 캐주얼한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일상복이라고 봐도 무방한 캐주얼한 디자인 제품 트렌드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윤지는 라푸마 디자인 실장은 “아웃도어의 영역이 기능성 아웃도어와 패션성 아웃도어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아웃도어 브랜드 간 디자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능성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추세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패션연구소는 올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를 약 8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6조9000억원보다 16% 증가한 규모다. 이선애 기자 isa@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 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는 특하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시제 14-02245호(2014.04.07 ~ 2015.04.06)



이마트, 자연유래 화장품 ‘솔루시안 라이브’ 출시

클렌저·미스트·에센스·오일 등 5종



이마트는 화장품 전문 제조기업 엔프라이와 손잡고 ‘솔루시안 라이브’ 5종(사진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솔루시안 라이브는 물 세안없이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 ‘뿔뿔 클렌저’를 포함해 ‘뿔뿔 미스트’, ‘뿔뿔 에센스’, ‘뿔뿔 크림’, ‘뿔뿔 오일’ 등 5종이다. 상품별 가격은 뿔뿔 클렌저 150mm 1만5900원, 뿔뿔 미스트 100ml 1만5900원, 뿔뿔 에센스 30ml 2만4900원, 뿔뿔 크림 50ml 2만4900원, 뿔뿔 오일 30ml 2만4900원이다.

이마트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자연에서 유래한 원료라고 강조했다. 주 원료로 사용된 ‘뿔뿔’은 목

수들이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자주 썼기 때문에 ‘목수의 약초’라고 불리며, 피부 분연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마트는 생산과 판매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 매월 새 제품을 생산 판매해 신선함을 유지하고, 언제 제조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신선 제조일을 크게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1년으로, 신선함을 강조했다. 이다람 기자 zing@

통신사 '겜심' 노크... 게임사와 협업 강화

삼성·LG·애플... 스마트폰 정면승부

SKT, 엔씨소프트와 MOU... '리니지 모바일 정액제' NHN엔터와 손잡고 22일 게임 플랫폼 발표회 열어 20일 영업재개 앞두고 보조금 대신 서비스 강화 포석

모바일게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신사와 게임업체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에서 그래픽과 게임성을 두루 갖춘 고퀄리티 장르인 역할수행게임(RPG)이 인기를 끌며 통신사와 게임업체 간 협력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피쳐폰 중심이던 자제 마켓 플랫폼을 보유하며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통신사가 생존을 위해 게임 업체와 손을 잡아 눈길을 끈다. 통신사의 이같은 행보는 20일로 예정된 이통3사

동시 영업재개를 앞두고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임업체와 협력에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 모바일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NHN엔터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모바일게임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사용자별 맞춤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마케팅 협력 사례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NHN엔터가 신작 게임을 출

시하는 경우 SK텔레콤은 고객들이 데이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NHN엔터가 준비중인 신규 모바일게임 플랫폼 관련 공동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22일 모바일 게임 플랫폼 발표회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NHN엔터는 다양한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사들이 콘텐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SK텔레콤이 게임업체와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는 넥슨과 손잡고 '카트라이더 러쉬+'의 제휴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월정액 3000원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무제한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하며 겜심(게이머들의 마음)을 두드려왔다. 지난 3월에는 넷마블과 손잡고 데이터

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프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단순 이벤트를 넘어 대형 게임업체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서비스 발굴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지난 3월에는 엔씨소프트와 MOU를 체결하고 '리니지 모바일-헤이스트' 출시일에 맞춰 LTE 네트워크 게임 전용 '리니지 모바일' 정액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 LTE 고객은 월 3000원만 내면 '리니지 모바일' 게임을 데이터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양사는 제휴를 통해 마케팅 노하우 공유와 API 정보 교류 등 차별화된 모바일 게임 콘텐츠 공동 개발 방안도 논의했다. SK텔레콤이 게임업체와 협업에 나서면서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KT와 LG유플러스도 게이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모바일 게임 업체와의 협력이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 '갤S5 프라이밍' 내달 선보여 LG 'G3' 오는 27일로 출시 당겨 애플 '아이폰6' 8월중 시장공략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세 강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올 여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면승부를 펼친다. 이달 말 LG전자를 필두로, 다음 달과 8월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특히 이달 20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동시 영업재개를 하는 만큼, 스마트폰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5'의 프리미엄 버전 '갤럭시S5 프라이밍'이 다음달 출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출시 한 달만에 1100만대를 판매, 최단기 '텐 밀리언셀러(1000만대)'를 돌파한 갤럭시S5와 신모델 갤럭시S5 프라이밍을 통해 시장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다. 특히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세계 1위 자리를 놓친 애플의 뒷발 북미 지역까지 탈환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점유율은 애플(37.3%)보다 7.3%포인트 낮은 30.0%다. 갤럭시S5 프라이밍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QHD(2560×1440)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풀HD(1920×1080)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던 갤럭시S5보다 해상도가 한 단계 향상됐다. LG전자는 최고 사양으로 무장한 전략 스마트폰 'G3'를 출시하고 삼성을 뒤쫓는다. 오는 27일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 북미와 유럽에 이어 28일 서울, 이스탄불,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 G3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갤럭시S5가 고기능 대비 낮은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사양을 갖춘 G3로 갤럭시S5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애플도 오는 8월 중 '아이폰6'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이폰6는 9월 출시가 유력했으나 최근 주요 외신들은 출시 시점을 앞당겨 시장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폰6는 기본 모델인 4.7인치 화면 제품을 8월 선보인 이후 9월에는 5.5 또는 5.8인치의 고급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gulyj@

온라인판, 도매업체에 RFID리더기 무상지원

약국 영업·마케팅 업체 온라인판은 거래 중인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리더기를 무상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RFID 리더기 무상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 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도매업체의 준비 부족 등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의약품 유통·제조·판매 관리를, 내년 1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다. 온라인판이 무상지원하는 RFID 리더기는 유통기간, 제조번호 등 개별 의약품의 전주기 제품정보를 담은 일련번호 관리용으로 사용된다. 이 회사는 현재 의약품이 도매업체로 출고될 때 사전출하정보(ASN)를 전자파일로 제공해 도매업체의 입고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남궁광 온라인판 대표는 "RFID 리더기 무상지원은 거래 도매업체들이 일련번호 제도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RFID 기반 일련번호 노하우를 관련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판은 한미약품 자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계열사로 전국 1만7000여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LG U+, 오늘 영업재개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법원 "WINDOWS 도메인 주인은 MS"

'window' 포함 도메인 보유 고모씨, MS 상대 소송 패소

'WINDOWS'가 포함된 도메인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고모 씨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이름 이전사용 금지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window', 'microsoft' 등이 포함된 13개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 MS는 2013년 전미 중재원에 "고 씨의 도메인이 WINDOWS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며 도메인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고 씨는 "자신이 보유한 도메인의 경우 웹사이트 개설을 하지 않아 MS의 WINDOWS 상표와 오인될 가능성이 없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S의 WINDOWS는 국내 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저명한 상표"라며 "고 씨가 도메인을 등록할 무렵 WINDOWS 상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홈쇼핑 입점이 살길" 中企 판로 확보 사활

'홈쇼핑 입점 상담회' 경쟁 치열

"판로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번에는 홈쇼핑에 꼭 입점해야 합니다. 관련 MD가 적절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2차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홈쇼핑 입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직접 판매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이라는 새로운 영업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홈쇼핑 입점 MD 1:1 상담회'에도 수십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D사 대표는 "판로 확보가 너무 힘든 것이 현실이어서 홈쇼핑 MD 상담회가 열린다면 입점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사활한 경쟁을 벌인다"고 말했다. 19일 홈쇼핑에 따르면 이 홈쇼핑의 지난해 연간 취급액은 1조1451억원으로 개국 첫해인 2012년(7070억원)과 비교할 때 1년만

에 61.9% 증가했다. 홈쇼핑이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약 80% 이상이다. 국내에 6개 홈쇼핑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수요는 여전히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홈쇼핑 상품선정위원회가 입점 심사한 아이템도 올 4월까지 총 1100여개에 달한다. 홈쇼핑은 다른 판로에 비해 집객력이 크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성장 발판으로 주로 이용된다. 안마의자 렌탈 중소기업인 바다프랜드 역시 2010년 4월 CJ홈쇼핑 론칭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이 3배 급증하며 매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홈쇼핑에 입점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기대보다 쉽지 않다. 스펙 변경 유연성, 브랜드 인지도, 시너지형성, 가격경쟁력 등 다양한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 홈쇼핑 상품 3명 이상 MD는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받았을 때 만족감을 나타낼 정도의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제안을 유도하는 등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입점이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안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 역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기업은 움직이는 푸른심장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가격부담 낮춘 중소형... 교육특화 돋보여

주목! 이곳 **평택 소사별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전용 74·84㎡타입 1345가구... 3.3㎡당 분양가 800만원 초반대
비평준화 지역 최초 단지내 별동학습관...중·고교생 특별보습도
고덕국제도시 삼성전자 입주...KTX지제역 인근 개발호재 기대



반도건설이 오는 23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갈 '소사별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조감도.

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대규모 택지 분양 열기가 뜨겁다. 수도권 택지지구는 서울로의 접근성과 풍부한 녹지를 갖추고 편의시설 등이 개선되는 곳이다.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청약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택 소사별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일원 302만4013㎡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단일 택지지구로는 평택 최대 규모로 편리한 비전동 생활권과 함께 최근 잇따른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고덕국제도시의 삼성전자 입주(수원사업장의 2.8배), 진위산단의 LG전자 확장 등 산업 단지의 대규모 배후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강남-수서를 20여분에 잇는 KTX지제역(개통예정)이 인근에 위치해 앞으로의 개발이 더욱 기대된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예정돼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 또한 기대할 만하다. 아울러 인근에 20만㎡가 넘는 규모로 신

세계 안성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으로 문화와 쇼핑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반도건설은 오는 23일 소사별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소사별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평택 소사별지구 B7·8블록에서 지하 1층, 지상 25층, 15개동 총 1345가구(B7-630가구, B8-715가구)로 조성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인 전용면적 74㎡, 84㎡ 타입으로 공급된다.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소사별 B7·8블록은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고 롯데마트와 뉴코아아울렛이 가까워 기존에 형성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비평준화 지역의 평택시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특화 프로그램을 단지 내에 도입했다. 평택 최초 단지 내 별동학습관을 건립하고, 유명 온라인 교육기관과 연계해 중·고교생 교과과정에 맞춘 특별보습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또 동탄2신도시에서 선보였던 수원여대 평생교육원의 취미문화 강좌, 수원여대 아이웰센터와 연계한 유아 및 초등생을 위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신도시 평면 강자라는 별칭답게 소사별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에도 입주자가 넓게 쓸 수 있는 설계를 적용했다. 중소형 4베이-4룸(74㎡, 84㎡)을 기본으로 평면특화를 선보인다. 주방 옆의 방 대신 알파공간을 선택하면 대형 수납공간과 함께 다양한 용도(방스오피스, 자녀놀이방 등)로 활용 가능하다. 84B㎡ 타입의 경우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거실과 방3을 확장하면 77㎡에 달하는 광복 거실이 가능하며, 극대화된 드레스룸과 펜트리로 등으로

효율적 수납 또한 가능해 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평택지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든든한 배후수요와 함께 미군기지 이전, KTX지제역 개통 예정으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과 평면에서 앞서가는 아파트를 합리적 가격에 선보일 예정으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00만원 초반대에 책정됐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2순위, 30일과 다음달 2일 3순위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23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30번지(비전고등학교 맞은편)에 오픈한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문의 031-653-9393
강영관 기자 kwan@

'투자이민제 확대' 수혜지 송도 미분양 주름살 펴나

'별그대 효과' 중 관광객 관심...주택시장 기대감

송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송도 부동산 시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19일 한국관광공사 관광R&D센터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국 관광객은 104만67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이 중 63%인 66만6000명이 인천공항과 인천항구를 통해 입국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인천과 가까운 송도를 찾았다.
특히 중국에서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효과로 극중 촬영지인 인천대 송도캠퍼스, 송도 센트럴로, 송도 석산에 중화권 팬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처럼 송도국제도시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송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중국인도 점차 늘어 가는 추세다.
송도 내 중개업소들은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송도 내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중국인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미분양 주택은 1939가구로 전월 대비 10%(215가구), 지난해 12월 대비로는 25%(543가구) 각각 감소했다.
센트럴파크 인근 송도 아트원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드라마 '별 그대' 주인공들의 데이트 장소로 알려지면서 센트럴파크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으며 중국인들의 부동산을 통한 문외도 꾸준하다"며 "아트원 푸르지오는 실제 계약을 한 중국인들이 있어 외국인 투자이민제 완화로 송도를 찾았다가 이후 이민 목적으로 다시 찾는 중국인들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아파트 거래 주춤... 분양시장은 활기

전·월세 과세로 매매·집값 상승폭 둔화 전세난 지친 세입자 미분양·청약 관심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고 2·26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 등으로 투자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에 피로감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는 9만 2691건으로 올해 들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월별 증가율은 1월 117.4%에서 2월 66.6%, 3월 34.2%, 4월 16.6%로 둔화했다.

아파트 가격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크게 둔화했다.
반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8167가구로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 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일 정도로 달아올랐다. 올해 4월까지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가운데 순위 안에 마감한 단지는 총 59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26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강영관 기자 kwan@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위치	아파트명	연락처
5/19 (월)	접수	경기 김포시	감정동 한강센트럴하이차(A2) 3순위	1644-1988
		경기 평택시	소사동 평택소사별B5(공공임대) 1순위	1600-1004
		경북 포항시	양덕동 포항정랑천년나무6블록(국민임대) 1,2,3순위 29㎡형	1600-1004
	계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금호아울렛 (~5/21)	02)395-4600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3지구12블록(공공분양) (~5/22)	1600-3456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1단지(공공분양) (~5/22)	1600-3456
5/20 (화)	접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중흥S클래스센트럴2차 (~5/21)	062)364-0001
		경기 부천시	목길동 부천옥길A-2(분남임대) 1순위	1600-1004
		경기 평택시	소사동 평택소사별B5(공공임대) 2순위	1600-1004
	발표	대구 동구	대림동 대구혁신사한이다음3차 1순위	053)753-7500
		대구 옥포동	대구옥포B1(공공임대)	053)643-2003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5/22)	02)2061-0277
5/21 (수)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호반베르디움(RC-4B) (~5/22)	032)858-9393
		경기 부천시	목길동 부천옥길A-2(분남임대) 2,3순위	1600-1004
		경기 용인시	상현동 용인수지휴먼하임 1,2순위	1899-9822
	접수	경기 평택시	소사동 평택소사별B5(공공임대) 3순위	1600-1004
		대구 동구	대림동 대구혁신사한이다음3차 3순위	053)753-7500
		대구 동구	대림동 대구혁신사한이다음4차 3순위	053)753-7500
5/22 (목)	발표	경북 경산시	임랑면 경산신대부적한신힐스테이트 1순위	053)793-2777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2차푸르지오 1순위	1588-4601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클래스(B4)	031)409-7500
	접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반베르디움2차(B9)	031)314-5500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금강현대리움(A39)	1899-5733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도시더샵리버포레 1,2순위	1644-0087
5/23 (금)	발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영무예마을 1순위	062)368-3900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2차푸르지오 3순위	1588-4601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2차푸르지오(A6)	1899-1664
	오픈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힐스테이트	1899-0058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아현PARK	02)562-980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9-1331
접수	경기 용인시	서천동 서천2차PARK	031)232-1222	
	경기 평택시	비전동 소사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B-7, B-8)	031)653-9393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의정부민력2(공공임대) 1순위	031)838-7861	
발표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도시더샵리버포레 3순위	1644-0087	
	경기 김포시	감정동 한강센트럴하이차(A2)	1644-1988	

(주1) * =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5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 총 6621가구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연휴기간 직후 물량이 집중된 지난주(1만 4809가구)에 비해 약 55% 감소한 수치다.
이번 주 지방에서는 경북, 대구, 충남, 전남 지역에서 총 3133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북 포항 '포항정랑천년나무6블록'(960가구) 국민임대 △경북 경산 '경산신대부적한신힐스테이트'(354가구) △대구혁신도시 시지구 '대구혁신사한이다음' 3차(380가구)·4차(244가구) △충남 당진 '당진2차푸르지오'(581가구)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영무예마을'(614가구)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만 공급이 이뤄진다. △용인 '용인수지휴먼하임'(112가구) △평택 소사별지구 B5블록(765가구) 10년 공공임대 △하남 미사강변도시 '미사강변도시더샵리버포레'(875가구) △의정부 민력지구 2블록(812가구) 10년 공공임대 등 총 3488가구가 공급돼 전국 물량 중 약 53%를 차지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PATIO 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Performance
- Concert
- Exhibition
- Launch show
- Convention
- Seminar and
- Wedding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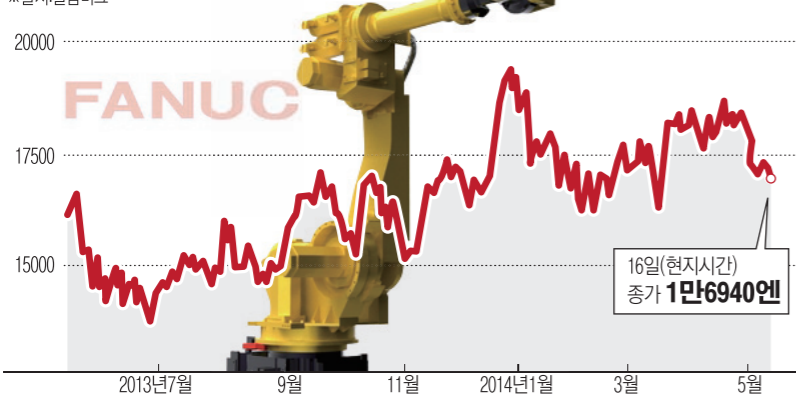
불가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화낙 1년간 주가 추이



문어발 확장 없이 40년간 R&D 올인

아시아 혁신기업

- 1 바이두
- 2 라쿠텐
- 3 WH그룹
- 4 텐센트
- 5 화낙

일본 산업용 로봇제조업체 화낙의 성공 비결은 '한 눈 팔지 않기'다. 회사는 무리한 사업확장 대신 연구·개발(R&D)에 주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회사는 포브스가 선정한 '2013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 순위에서 아시아·태평양 기업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26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 같은 조사에서 1년만에 17계단이 나 뛰어오른 것이다.

포브스 선정 26위 올라 후지쓰 사내벤처로 시작 20여개국 판매법인 운영 공작기계 위치·속도 제어 CNC컨트롤러 기술 선도

화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친숙한 기업은 아니지만 산업용 로봇 업계에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 영향력은 막강하다. 화낙의 공업용 로봇은 항공 자동차 소비자 의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의 핵심부품인 'CNC컨트롤러'부문에서는 돋보이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CNC컨트롤러는 공작기계의 위치와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핵심부품이다. 즉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화낙의 제품이 활용된 공작기계를 쓰지 않고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리맨이었던 이나바 세이우에몬의 손에서 태어났다. 1956년 후지쓰 사내 벤처로 시작된 화낙은 1972년 후지쓰로부터 완전독립 때 이후 줄곧 R&D에 초점을 맞춰왔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나 무리한 계열사 확장은 없었다. 오로지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만 주력했다. 회사는 1976년 독일 지멘스와 손을 잡고 벤처회사를 설립했으며 2010년 회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손잡고 '화낙CNC아메리카'라는 벤처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에는 1978년 진출했다. 현재 회사는 현재 5개 대륙 20여개국에서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기계산업이 단순한 제품 생산·가공을 넘어 융·복합화·로봇화·인공지능화 무인자동화 조정밀화 친환경화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화낙은 IT융합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무인 기계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일본 다이와캐피탈마켓은 화낙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용 로봇시스템시장이 2020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410억 달러(약 4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中 토종 IT 대결 "텐센트가 앞선다"

위챗·JD닷컴 등 탄탄 알리바바 美IPO 관전



제 마 알리바바 회장 마화팅 텐센트 CEO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모바일 메신저 응용프로그램(앱) '위챗(WeChat)',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로 유명한 텐센트가 자국 인터넷 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부문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텐센트가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최근 미국 CNBC가 보도했다.

벤처캐피탈업체 돌캐피탈메니지먼트의 데이비드 차오 설립자는 "텐센트는 위챗으로 중국 모바일시장을 장악한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 게임에서 확실한 거점도 확보했다"며 "1회전에서는 텐센트가 근소하게 알리바바에 앞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챗의 실질적 사용자는 지난 1분기에 3

억96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텐센트는 위챗을 바탕으로 슬금슬금 알리바바의 자리도 노리고 있다.

회사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 지분 15%를 인수했으며 위챗에 전자결제 기능도 포함해 사용자들이 이 앱에서 빠져나갈 필요 없이 바로 영화관 표를 구매하는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중시 기업공개(IPO)로 낙성한 실탄을 확보하게 될 알리바바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알리바바도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지분을 인수하고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전자상거래를 넘어 종합 IT서비스업체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AT&T, 디렉TV 인수...美 '통신·TV' 통합 속도

485억 달러에 합의... 컴캐스트·TWC 이어 두번째 매가딜 "다양한 장소에서 영상콘텐츠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미국 이동통신업체 AT&T가 미국 최대 위성TV 업체 디렉티비(Direc TV)를 약 48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했다.

AT&T는 이날 주당 95달러, 총 485억 달러에 디렉티비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16일 증가 86.18달러에 10%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 매입 대금 중 주당 28.50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AT&T 주식으로 지급된다. 디렉티비의

부채까지 감안하면 이번 거래의 총 가치는 671억 달러(약 68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통신업계와 케이블업계의 지각을 흔드는 두번째 매가딜이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미국 유료TV와 통신시장이 두 가지 사업을 겸업하는 소수 거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는 450억 달러에 타임워너케이블(TWC)을 인수하기로 하고 당국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AT&T는 이번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고 3년이 지나면 연간 16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망했다. 랜들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는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재정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라고 표현하면서 "고객들이 모바일 기기는 물론 TV, 자동차 비행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영상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탄생하게 됐으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디렉티비는 미국에서는 가입 가구가

2000만 가구에 이르는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 유료방송업계 전체로 따지면 컴캐스트에 이어 2위다.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는 케이블까지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체 중 1위로 1800만 가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AT&T의 유료TV 가입자 수는 600만 가구에서 약 260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미국 최대 유료방송사업자인 컴캐스트의 가입자 수(2260만 가구)를 능가하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발칸반도 홍수 120년만에 최악 18일(현지시간) 발칸반도 중부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에 내린 폭우로 세르비아 오브레노바츠의 수만 가구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겨 있다. 지난 16일부터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내리 1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났다. 이번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다. 오브레노바츠/AP연합뉴스

글로벌 리포트

스위스, 최저임금 인상안 부결

스위스에서 18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월 4000스위스프랑(약 472만원) 또는 시급 22스위스프랑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방안이 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국민의 76.3%가 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날 투표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는 스위스가 고용의 중심을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 등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 살려면 최저임금이 최소 시간당 22스위스프랑은 돼야 한다고 인권을 국민투표에 상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사업조건이 악화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터키 탄광사고 구조작업 종료

터키 마니사주 소마군 소마탄광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30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5일만에 구조작업이 끝났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인문들이 보도했다.

타네트 이을드즈 에너지부 장관은 17일 소마탄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대가 갱 안에 남은 마지막 희생자도 추정되는 광부 2명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작업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갱 안에 구출될 광부는 더는 없다"며 "사망자는 모두 301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탄광의 공식 발표로는 사고 직후 363명이 탈출했으나 부상자 등 122명이 구조됐고 30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과 노동조합 등은 정부와 탄광회사가 희생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고 초기 갱 안의 전력설비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갱 안에 방치된 전기선들과 메탄가스 폭발 등이 원인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돼 사고 원인 논란은 계속됐다.

이번 사고 희생자는 1992년 흑해 연안의 종굴닥 탄광 사고의 사망자 236명을 넘어 터키 최악의 탄광 참사로 기록됐다.

美 메르스 사망간 감염 첫 사례

미국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망 간 감염 사례가 세계 최초로 발생해 전염 확산 우려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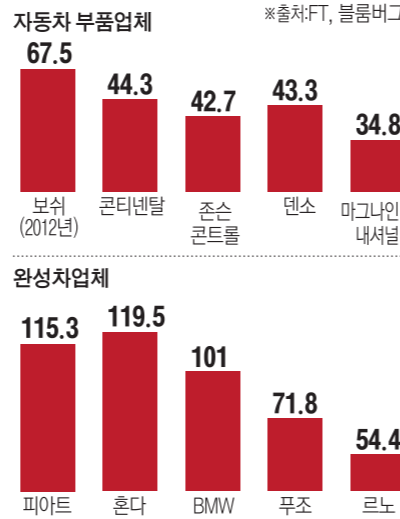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국 내 첫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인 인디애나주 거주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혈액에서 메르스 항체를 발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남성은 외국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6일과 27일 미국 내 첫번째 환자와 만나 40분간 대화를 나누고 약수를 한잔으로 확인됐다. CDC는 이 남성이 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폴리메라제 연쇄반응(PCR)'테스트와 바이러스 노출 경험을 확인하는 혈액검사 중 후자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BMW든 아우디든 벤츠든 똑같은 브레이크·배터리 사용" 메이저 '부품' 없이 車 완성 안돼요

내부 시스템 비중 85% 달해 완성차, R&D 아웃소싱 탓 부품업체 기술의존도 늘어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 매출 비교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완성차업체들이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가졌으나 이제 보쉬와 콘티넨탈 등 메이저 부품업체들도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스트래티지앤컨설턴시의 잰스 내마이어 파트너는 "자동차산업 지배력이 바뀌고 있다"며 "엔지니어링과 기술, 혁신의 핵심이 이제는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공급업체에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16개 완성차업체의 연간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었는데 이들 업체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주요업체는 10곳에 불과하다. 이는 소비자가 BMW나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어떤 브랜드를 고르든지 브레이크는 콘티넨탈, 배터리는 존슨 콘트롤 등 부품은 같은 업체가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FT는 설명했다.

부품업체가 대형화되면서 글로벌 10대 부품업체 가운데 '톱 10'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게 됐다.

또 이들 메이저 부품업체의 매출 증가율

은 지난 10년간 그들의 고객인 완성차업체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가격결정이나 기술변화 추이 등에서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과 협상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사실 이런 변화는 완성차업체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많은 완성차업체가 연구·개발(R&D)을 아웃소싱하면서 점점 더 부품업체에 기술을 의존하게 됐다.

또 완성차업체가 신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과 브라질 등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맞춰 인근에 부품공장을 설립할 역량도 대기업밖에 없다는 평가다.

자동차 내부 시스템에서 부품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품 비중은 85%에 이르게 됐다. 완성차업체가 보유한 독자엔진을 제외한 전 부분이 이들 공급업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에 완성차업체들은 진정한 제조업체라기보다는 브랜드를 가진 단순 조립업체에 불과하게 됐다고 FT는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애플, 음악 스트리밍 사업 진출하나

다운로드 수의 10년 만에 감소... 최근 비츠일렉트로닉스 인수

애플이 음원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디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스를 선보인 이후 음악 부문에서 이렇다 할 사업을 선보이지 않았던 애플이 최근 음악 부문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

문이다. 최근 애플이 미국 유명 힙합 뮤지션 닥 터드레가 만든 헤드폰업체 비츠일렉트로닉스를 32억 달러(약 3조2800억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마트폰은 물론 음악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 전망 소식은 판도

라미디어와 스포티파이(Spotify)가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목했다.

다운로드 대신 가볍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애플의 음원 다운로드 수익은 전년보다 2% 줄어 아이튠스 서비스 시작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애플이 비츠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음원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세월호 참사 檢, 유병언 회장 정관계 로비 단서 포착

50억 골프채... 인척이 창구 역할 의혹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이어 소환 조사했지만 전면부인 세모 고의부도 뒤 내부거래 등 정관계 인사 개입 조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정해 진해운 회장)의 정관계 로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검찰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인천 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모 그룹 A 회장을 통해 정관계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인척관계인 A 회

장이 서울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에서 2008~2009년 50여억원 어치의 고급 골프채 등을 구매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A 회장이 유 전 회장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수년간 고급 골프채 수백 세트를 구매해 정관계와 금융계 로비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골프채와 A 회장의 자택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골프채 판매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검찰은 A 회장과 골프채 사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직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지난 1997년 (주)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횡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룸만 바꿔 사들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정관계 인사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봉제완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은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

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인맥을 형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의 경우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해운법 등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인과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인허가나 편의 등을 위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檢, 유병언 회장 강제구인 검토... “법정 최고형 심판”

검거때까지 철야근무에 돌입

“극악 부패기업인 끝까지 추적”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 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검사)은 19일 유 전 회장이 오는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30여명)을 구성,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시 금수원 주변에 잠복시키는 한편 경찰을 통해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범인은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검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후 경찰과 협조해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10여곳과 대구 주소지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곳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김희종 팀장 등 수사팀 전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할 때까지 철야근무에 돌입한다.

공권력을 우회하고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극악의 부패기업인 소유자를 끝까지 추



내부 공개한 금수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8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언론에 공개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유병언 전 회장의 스튜디오가 설치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은 4년 동안 이곳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었다고 금수원측은 밝혔지만 이날 스튜디오 내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적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창계광장 등 도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다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 100명을 연

행했다.

이들은 신고된 행진 통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려다 광화문사거리에서 도로를 점거, 경찰과 맞섰다. 경찰은 수차하라는 침묵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다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 100명을 연

행했다. 유해는 기자 euna@

최장 8년간 인사 제한

‘전문직위제’ 조기시행

안행부, 반년 앞당긴 7월 목표

공무원 전문성을 위해 한 직위군에서 최장 8년까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전문직위제가 애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전문직위군 시행을 앞두고 부처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군을 분류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안행부는 지난 2월 공무원임용령을 수정해 비슷한 전문직위끼리 전문직위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전문직위군에서는 최장 8년간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전문직위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재난 대응-예방 전문성 부족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시행 시기를 오는 7월로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은 기자 euna@

사고 낸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평가 1등?

(작년 7월 美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국토부 ‘항공서비스평가’ 최고

안전성 항목 無감점 처리 논란

발표 미루고 다시 평가 하기로

지난해 착륙사고 이력을 가진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항공서비스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논란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기준을 바꿔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3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는 우리나라 공공체 항공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정시성, 피해 구제성,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항목 중에는 사고·준사고 발생률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성’ 항목이 들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 중 지면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 항목에서 전혀 감점을 받지 않았다. 당시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평가에서 모순된 결과가 나온 것은 기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평가업무 지침에는 ‘사고와 준사고, 사망자 수는 평가연도에 항공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를 발견한 국토부는 안전성 항목의 사고·준사고 평가 기준을 ‘평가연도에 발생한 건’으로 고쳐 행정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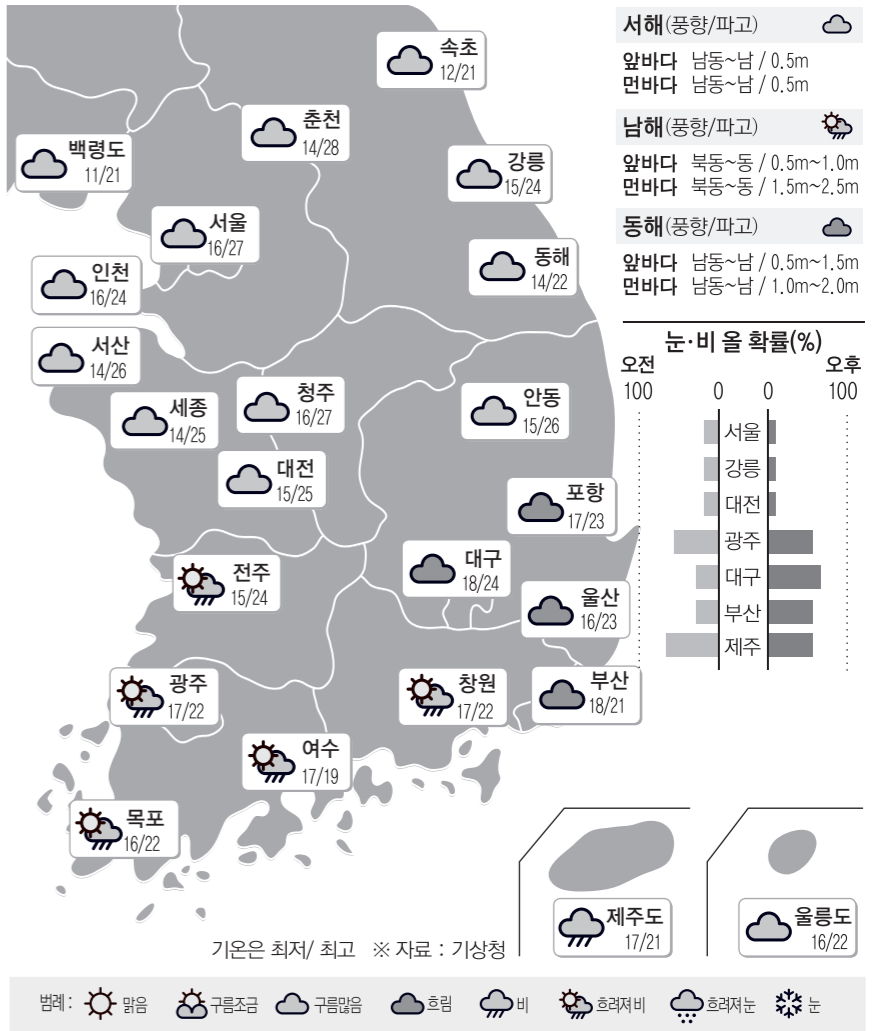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의 수 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lamuziq@

내일의 날씨

5월 20일 ☀ 해돋이 05:19 해질 19:38 🌙 달돋음 --:-- 달짐 10:42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다. 비는 오후 늦게 점차 그칠 것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19-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3.0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m로 일겠다.



하도급대금 증액 미룬 ‘한전KPS’ 제재

공정위, 재발방지 위해 시정명령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한전KPS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마땅히 늘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루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전KPS가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 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

동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

하지만 한전KPS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법정기한을 적게는 94일, 많게는 537일을 넘기고 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줬다.

한전KPS가 수급사업자에 증액한 하도급 대금은 2억2819만원이며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는 모두 3120만원이다.

공정위는 한전KPS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lamuziq@

‘운구 방해’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 연행

경찰과 양산 분회장 장례로 충돌

최근 습진 채 발원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양산센터 분회장 염모(34)씨의 시신 운구에 반대하던 지회 조합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25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장례식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염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

해하고 운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염씨의 유족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지 못하도록 조원들이 막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3개 중대 약 250여명을 투입, 2시간 가까이 조합원 80여명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경찰의 장례식장 진입에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편 조합원들이 자체 해산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염씨의 시신은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효성ITX 콜센터 “47세 이하 여성 우대”

여성직장 재탐색

월 급여 130만원 주5일제 근무

IT(정보통신)·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상장기업 효성ITX(주)가 콜센터상담원을 모집한다.

업무는 고객상담으로 47세 이하 여성과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 능력도 우대 사항에 들어간다. 그러나 경력이나 학력엔 제약은 없다. 월 급여 130만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는 면접 후 재조정할 수 있다.

서류 접수를 거쳐 면접으로 채용 여부가

모집요강	
모집직종	콜센터상담원
직무내용	콜센터상담업무
접수마감일	2014년 5월 31일
고용형태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여성우대, 인근거주자

결정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오는 31일까지 팩스(02-2102-8649)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은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에 있다. 월-금요일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복지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2102-864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효성ITX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강화해 2018년까지 연 매출 7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나무와 힐링 유종석의 숲과 나무의 가치

2006-2008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11세 아이 5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중 피부가 약한 아이들에게는 만성적이고 재발성 피부염을 발생시켜 잠기 힘든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업화에 따른 환경요인의 변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요인은 환경공해, 서구식 주거형태로 인한 카펫, 침대, 소파의 사용 증가, 실내온도 상승으로 인한 집먼지진드기 등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 중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의 실내공기 오염문제가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화합물, 미세 먼지, 석면 등이 원인이고 이것들이 세집중후균을 유발하고 아토피 질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토피 유발물질들을 제거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으나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하거나 실내 공기를 상시 정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파트의 아이방을 국산 목재로 처리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고 목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벤처 생태계의 복원

2001년 전 세계 IT 버블이 붕괴했다. 미국의 나스닥과 함께 한국의 코스닥도 동반 폭락했다. 이는 전 세계적 신경제 붕괴 현상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몰지마 투자', '무늬만 벤처' 등의 속저양을 찾아내 소위 '벤처 건전화 정책'이라는 벤처 규제 정책들을 쏟아 낸 것이다. 그 대표적 정책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합병, 벤처 인증제의 보수화, △주식 옵션제의 보수화 △기술거래소 통합이었다. 이들 벤처의 손발을 묶는 4대 규제 정책의 결과, 나스닥이 원상 회복하는 동안 코스닥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세계적 미래 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국가에서 OECD 국가 중 최악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국가로 전락했다.

벤처 빙하기 속에서도 2001년 이전 창업한 벤처들은 굳건히 성장했다. 3만여개 벤처의 총매출액은 삼성전자보다 많은 28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벤처의 더욱 중요한 점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성과다. 벤처기업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 경제성장 기여도가 한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인 1.2% 수준이다.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견인차인 벤처는 거품이 아니라 기적이었다.

코스닥은 벤처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고리다. 코스닥 상장 규모가 연간 180여개에서 40여개로 줄고, 상장 소요 기간이 7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나면서 코스닥은 급성장한 벤처 생태계의 회수시장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 코스닥의 활성화 없는 벤처 활성화는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코스닥 문제의 핵심은

시장 운영 철학을 뒷받침하는 지배구조의 문제다. 인적 쇄신이 중요한 이유다.

벤처 인증제는 '무늬만 벤처'를 없앤다는 이유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인 용자 심사 위주로 전환됐다. 용자 보증을 벤처가 가진 '고위험·고수익'과 반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기 기술 벤처들의 벤처 인증이 어려워지면서 초기 벤처 지원을 위한 세계 최초의 벤처기업특별법의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연구개발 위주의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비기술벤처를 다양하게 인증하는 초기 벤처 인증제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주식 옵션은 벤처기업에 인재 유입의 유일한 대안이다. 실리콘밸리의 인재가 벤처로 가는 이유다. 그런데 주식옵션과 시가의 차액을 기업의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기준이 시행되면서 주식 옵션 제도는 인재 유입의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 주식 옵션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대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 당국의 의지다.

기술거래소는 벤처의 기술사업화 결과를 대기업에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기술의 가치는 정부기관의 평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결론이다. IP와 M&A의 거래 플랫폼이 될 민간 주도의 새로운 기술 거래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 벤처붐의 전제조건은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했던 초기 벤처 생태계의 복원이다. 이를 이룬 이후에 자금 지원 정책 등을 펴는 것이 순서다.



피톤치드, 장·심폐기능 강화하고 살균효과 목재로 꾸며진 방은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

재를 이용해 실내 내장을 마감하는 것으로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실내를 목재화(목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재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제거효과가 있으며 국산 목재의 경우 편백, 잣나무, 소나무가 20-35%로 다소 높고 낙엽송 11-16%, 삼나무 9-14%로 다소 낮은 제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면적이 넓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과학원 2008 국산침엽수 포름알데히드 제거효과 측정)

목재가 갖고 있는 테르펜류가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재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러시아 생화학자 토킨이 처음 제안했고, 식물이란 의미의 phyton과 죽이다의 cide를 합친 말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을 죽이고 유익한 것을 살리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며 살균작용도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산 침엽수림의 정유함량(단위 ml/100g, 박재철 1991 '환경과 조경')은 편백나무는 겨울 5.2, 여름 5.5, 소나무는 겨울 1.7, 여름 1.3, 잣나무가 겨울 1.6, 여름 2.1로 여름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톤치드는 집중력 강화 외에 스트레스 완화, 탈취 능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방을 목재화(목질화)해 꾸며 주는 것이 어떻까요. 목재로 꾸며진 방은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심성을 순화시키는 다양한 순기능을 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장

온라인 와글와글

증간소음으로 또 살인...규제보다 소통이 먼저

○...아파트 증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또다시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증간소음에 대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보다 중재기구를 만드는 게 더 급선무다", "증간소음 이전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더 문제인 듯", "증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나 알릴 등이 부족했기 때문", "자나가 있는 집은 아이들에게 증간소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어른도 인지해야 한다", "바닥에 카펫을 깔아 놓는 것도 증간소음 해소에 도



움이 되는 방법"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완공 직후 한 쪽으로 기울어진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이 결국 철거 작업 도중 붕괴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차피 철거해야 할 건물인데 잘됐네", "세월호 사고 탓에 잊혀져서 안될 건설업계의 고질적 안일한 사고 탓에 생긴 일이다", "기울어지지 않은 옆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다친 사람이 없으니 다행",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 "같은 건설사가 시공한 다른 건물들도 모두 점검해야 할 것", "다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가 너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게 더 큰 문제다" 등 많은 의견을 쏟아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오늘의 **이웃** **이웃** www.baekn.com

뮤지컬 '고스트' 국내 초연 무대 선 최정원



배극남닷컴은 최근 뮤지컬 배우 최정원(45)을 인터뷰했다. 최정원은 영화 '사랑과 영혼'을 각색한 뮤지컬 '고스트'의 국내 초연 무대에 서고 있다. 극중 최정원이 맡은 오다메 브라운은 남녀 주인공 삼과 물리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돌팔이 점성술사다. 최정원은 "고스트의 어떤 인물이라도 맡아 꼭 참여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감초로서 주인공을 빛내 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데뷔 25년 만에 개성과 조연으로 무대에 선 최정원은 카리스마를 잃지 않는 가운데 유쾌한 에너지를 뽐내 관객을 압도한다. 똥똥하고 어딘가 촌스러운 외모도 등장해 아주머니, 사기꾼을 연상시킨다. 최정원은 "원작에서 우리 골드버그가 연기했던 역할이라, 흑인 정서를 바탕으로 백인을 겨냥한 웃음 코드를 지녔다. 오리지널 제작진과 논의하면서 저만의 오다메 브라운을 재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최정원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고스트' 사상 처음으로 국내 버전에서는 손에 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대를 증명무진하는 최정원은 배우와 호흡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한다. 최정원은 "(KBS 2TV 드라마 '굿 닥터'를 끝내고 온) 주원에게 '웬지 의사 같이 생겼네'라고 한다거나, 다른 배우에게는 '내 스타일 아니네'라고 해 각기 다른 웃음을 전달한다"고 언급했다. 배우가 홀로 돋보이는 것보다 상대의 연기에 '리액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최정원은 "캐릭터의 직업, 나이, 지위에 따라 대사 톤을 연구하고, 작품의 성격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무척 재밌다"며 "공연을 마친 뒤 관객과 만나는 커튼콜의 순간이 가장 설레고 온 몸을 뜨겁게 한다"고 말해 타고난 뮤지컬 배우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북한,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에 이례적 사과 이유
- 2 아산 오피스텔 붕괴... 남아있는 쌍둥이 건물 어떻게?
- 3 미국서 메르스 사망 간 감염 첫 사례 발생
- 4 염수정 추기경 "세월호, 난 죄 없다 생각지 말라"
- 5 삼성전자 사상 순수 기부금은 월 1억4000만원

아이타올(주)

www.itowellmal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正論

올바른 투표가 나라를 바꾼다

6·4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본선 후보자 등록도 마감되고 각 정당과 정치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치와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드높은 가운데 치러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환경이 험난하다. 정치권은 슬픔, 분노, 좌절감, 자괴감 등이 복잡하게 혼합된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정치권의 행태는 과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는 약속도 훼손되었다. 공천에 유권자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장치와 절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치는 말만으로도 소란스럽다.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정치학

이합집산의 정치 행태도 변함이 없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념과 정책도 하룻밤 사이에 바꾸고 정당을 갈아탄다. 거주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시피 한 출향인사가 하루아침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공천을 받는 억지도 여전하다. 외면적으로는 경선으로 포장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밀착된 사람들이 후보자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민이 정치에 자유롭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치 과정에 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정치와 정부도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이와 같은 차원 높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선거는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가? 오히려 합법성의 미명 아래 부와 권력을 소유한 부정한 세력에 의해 선거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존속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런 선거 풍토에서 과연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수백 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이런 후진적 정치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위기만 모면하면 약속도, 공언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는 기만의 정치가 그 근본 원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실적인 올림이든 문화가 그 뿌리다. 선거란 것이 무엇인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

오늘 우리의 시국은 비상하다. 지금 우리는 분노와 원망과 무기력으로 좌절하여 혼란과 갈등의 나락으로 퇴보하는 나 아니면 치명적 결함을 과감하게 수술하고 앞으로 전진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4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이 결코 무관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치 과정이다.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은 희망의 끈을 헛되지 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 선택해야 한다. 성별, 나이, 정당, 학력, 출신지 등 선출직 공직의 본질과 직접 관련 없는 겉치레에 휘둘리지 말고 능력과 자질을 집중하여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주요 정당들은 철학과 소신 없이 해매고 있다. 나라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만 믿다가 희생되었는데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들을 회고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 다급하기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체념하거나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책임감 있고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오각성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목적인 과제가 바로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일이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피아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6·4 지방선거부터 잘못된 과거와 절연된 투표행위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객석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녀



육정균
국도교통부 중앙도지사
옹위위원회 재결과장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녀.

여름 바다로 가면서,
덕산 온천과 수석사를 지냈지
허허, 수석사를 지나며
만공 스님의 장난기 어린 얼굴이 떠올랐어.

함께 길을 가던 동행승이 다리가 아파
산 너머를 못 가겠다고 하자
마침 밥을 일구던 부부를 보고,
여인을 텃석 안고 입맞춤을 한 만공.
남편이 쇠스름을 들고 쫓아오자
단숨에 고갯마루를 오른 동행승,
“스님, 스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슈?”
하고 따지자

“아이 이 사람이. 그 바람에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예까지 달려오지 않았는감”

허허허...허허



기자의 눈

기업의 은밀한 자금줄 ‘비상장사’



김미정
자본시장부/mjk@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보다 비상장사를 활용한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더 관심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지속된 주식시장 침체 원인 중 한 가지가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수익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짜 비상장사는 고배당을 유지하며 기업의 은밀한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매년 3월 말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기업들의 알짜 비상장사를 통한 고배당 잔치 논란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곤 한다.

최근에는 대기업에 이어 중견기업마저 이같은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제습기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위닉스는 지난해 관계사인 위니맥스에 연간 순이익(76억원)보다 많은 80억원을 배당했다. 위니맥스는 위닉스가 만드는 제품의 유통 등을 맡은 비상장사로 유휴종 위닉스 대표이사 아들 윤철민씨가 자본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주력 상장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상장사로 이전한 뒤 이를 거액 배당으로 오너 일가가 취한 것이다.

이후 위닉스는 지난 4월 위니맥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일전 알짜 비상사를 흡수합병해 위닉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더 큰 이익은 윤철민 위니맥스 대표에게 돌아갔다. 위니맥스를 통해 위닉스 자본 3.72%만을 보유하고 있던 윤철민 대표는 이번 합병으로 단숨에 위닉스 2대주주로 올라섰다.

물론 주식회사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영권자의 판단 사항이다. 그러나 주주환원 정책에는 무관심한 채 비상장사를 통한 부의 이전이나 경영권 승계에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태도는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엘리의 특특특

애플카드 믿고 써도 될까요?



요즘 애플카드 정말 무섭습니다. 결제요청 메시지 받고 애플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결제가 딱! 끝!’하기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속 애플카드 때문에 ‘지름신(충동구매)’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형 모바일카드, 일명 애플카드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면서 고객들이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금융정보를 빼낸 해커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애플카드를 결제까지 한 신용금융사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이폰과 공인인증 방식이 결합할 때 해킹 위험이 크다며 아이폰에 애플카드를 설치할 때는 추가 인증을 거치라고 카드사에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심하고 애플카드를 써도 좋은 걸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해커에 의해 뚫린 것은 오래전 일이고 개인이 입력하는 정보를 빼가는 해킹 기술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오픈 소스 기반이고 애플의 iOS가 폐쇄적이라는 것도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올 당시부터 회자됐던 것들입니다. 다만 애플카드가 출시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새롭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동안 해킹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것뿐이지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

이번 사고로 아이폰의 보안이 나빠지고 오해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아이폰이 보안성 강화를 위해 앱이 유심(USIM)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읽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 해커가 이를 역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카드사들이 몰랐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해 9월 삼성, 신한, 현대,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6개 카드사가 애플카드를 공동 개발해 출시할 때 과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차피 해킹은 막을 수 없으니 우선 출시하고 보자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애플카드의 편리성을 강조한 상품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출시된 애플카드의 하루 평균 결제액이 10억원에서 3개월 뒤 95억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PC도 안전하지 않은데 스마트폰에서 금융 결제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였는지도 모릅니다.

금융당국이나 카드사나 애플카드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융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드사들이 고도화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삼성카드가 금융 사고를 적발한 것도 바로 FDS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커들이 호시탐탐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쉽고 편리한 애플카드를 고객들이 믿고 쓸 수 있게 말입니다.

금융시장부 기자 ellee@

이투데이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정치경제부 (02)799-2655 산업부 (02)799-2664 문화부 (02)799-2689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시정부 (02)799-2658 미래산업부 (02)799-2663 국제경제부 (02)799-2650	금융부 (02)799-2665 사회생활부 (02)799-2661 사정팀 (02)799-263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www.etoday.co.kr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건듯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품팔이꾼, 걸인, 비구나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애(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머리동그래진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울겨잡았던 운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한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알아가고 있다. —기자의 말, 중에서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로드무비 정”... 한국인의 정 보여줄 것

글로벌 청년문화 수교단 ‘세이울’ 남석현 단장 외국인 5명 한국여행기... 온라인 캐스팅 나서 ‘동해 표기’ 당위성도 영화에 담아낼 계획

동해 표기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우리 입장을 지구촌에 알리는 글로벌 청년 문화 수교단 ‘세이울’이 최근 영화제작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세이울은 외국인 5명이 2주간 동해를 포함한 국내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로드무비 정’ 제작 계획을 확정, 글로벌 출연자 5명 모집을 위한 온라인 캐스팅에 나섰다. 19일 밝혔다. 이 영화는 오는 8월부터 2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며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방방곡곡에 숨겨진 한국 문화를 체험

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정을 직접 깨닫게 되는 모습을 담은 예정이다. 세이울 남석현 단장(사진)은 “지난 5년간 33개국을 돌아다니며 한류 팬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만나봤는데 이들은 한국 문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한국인과 비슷한 ‘한국형 마인드’를 갖고 싶어했다”며 “한국인의 감성인 ‘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직접 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 앞서 동해 표기 문제를 80여 개국에 홍보하고 지난해에는 유럽 8개국을 돌며 한국 문화와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던 세이울은 이번 영화에선 여행지에 대해 지역을 포함해 동해가 왜 'East Sea'로 표기돼야 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 단장은 “한국에서의 여정을 담은 영화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람을 소개하고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정’을 각국 한국학과, 동아시아학과 학생과 한류 팬에게 전하고 싶다”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세이울은 홈페이지(www.sayul.org)와 유튜브를 통해 영화에 적합한 외국인 5명을 6월 8일까지 찾을 계획이다. 출연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유튜브에 자신이 등장하는 사진 30장으로 만든 영상과 한국 여행 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화상 채팅으로 최종 5명을 선발하게 된다. 또한 세이울은 일방적인 한국 홍보가 아닌 서로 친구가 되는 민간외교를 목표로 ‘한류문화 공공외교단’을 모집하고 있다. 각국 한류 팬과 한국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 교류를 하기 원하는 대학생은 세이울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박원갑 KB국민은행 위원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 출간

“왜곡된 부동산 인식 버려라”

투자자·구매자·집주인 등 합리적 판단 프레임 제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박원갑(사진)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4년 만에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해부했다. 투자 광풍 속 과열만장했던 부동산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는 철퇴를 맞은 후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재의 부동산은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하락 △주택 보급률 확대 △부동산 주요 소비층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젊은층의 주택 구매력 약화 등 저성장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로 크고 작은 거래에서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일이 잦다고 분석한다. 이에 투자자와 실구매자, 집주인과 세입자 등 저마다 다른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여자들이 주택보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현상, 경제학 박사도 기획부동산에 걸려드

는 이유,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심리 등의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었다. 특히 단기적인 투자 지점이나 미래 예측보다 부동산 시장에 깔린 복잡다단한 인간의 심리를 다각도로 보여줌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돕는다. 박 위원은 “젊은층이라면 기성세대의 왜곡된 부동산 인식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의 틀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이미 절망을 경험한 하우스푸어라면 조금이나마 치유의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강원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인스랜드(부동산담당)에서 부동산 전문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강영관 기자 kwan@**

황우석 “브라질서 동물 복제 연구”

“바이오 기술 분야서 엄청난 잠재력 가져” 공동연구 위해 과학자·기업들과 협의 중



지난 16일 에버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이 생명의 우물에 동전을 던지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에버랜드

물소 지원·우물 건립... 해외봉사 나선 삼성

삼성 해외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24일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나눔운동(GCS)과 함께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산간마을 80가구에 물소 각 1마리씩, 총 80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현지인 4명을 한국에 초청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가나안농학교에서 농촌개발 사례 교육, 생태농장 실습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4일 GC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입사원들이 하계수련대회에서 기부 팔찌인 ‘프라이드 밴드’를 자발적으로 구입해 조성한 기금 1억5000만원으로 2015년까지 베트남 산간지역의 농가에 물소 120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국제아동후원단체 플랜 코리아와 함께 우물을 건립해 주는 ‘아프리카의 꿈’ 캠페인에 나섰다. 에버랜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로스트밸리 입구에 ‘생명의 우물’ 모형을 설치하고 우물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이중근 부영 회장, 방글라데시서 ‘한류 졸업식’

부영그룹은 지난 17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지방정부 교육개발원 대회의장에서 방글라데시 최초의 한국식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고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윤영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와 모스타피즈르 라만 피자르 교육부 장관, 사마르 칸티 고스 초등교육장, 부영그룹 봉태열-김의기 고문 등 주요 인사와 교사, 학생 등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영그룹이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에 디지털피아노 5000대와 교육용 칠판 5만개를 기증한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이뤄졌다. 졸업식 노래를 한국어로 합창하고 졸업장을 수여하는 등 한국 졸업식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영관 기자 kwan@**



방글라데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식을 치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부영그룹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의학, 화장품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바이오 주도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상과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황 박사가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롯데건설, 임직원 가족과 현충원 봉사

호국보훈 되새기며 구슬땀

롯데건설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건설 임직원 13가족으로 이뤄진 50여명의 봉사단은 현충탑과 위패보안관에서 참배를 하고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및 화병 바로 세우기 등 묘역정리를 한 후 박물관을 견학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가족들이 함께 서로 도우며 정성스럽게 묘역을 단장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배를 하는 등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후문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장기불황에 경영년을 겪고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경영을 꾸준히 전개 해왔다”며 “국립 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임직원 가



롯데건설 임직원 가족이 현화를 교체하며 묘역을 단장하고 있다.

족이 함께 하는 현충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지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제도’로 기금을 마련하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랑나눔 봉사단’을 중심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수출입은행 희망씨앗 봉사단 발대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수은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은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은 지난해 창단했다. 이번 2기 봉사단은 서류심사를 거쳐 약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40명이 선정됐다. 발대식 직후 1박 2일 동안 기초 소양 교육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14개팀이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6회 이상 펼친다. 수은은 본점을 포함한 전국 지점과 연계해 대학생 봉사단의 활동을 전면 지원한다. 우수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해외 봉사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심심 수은 선임부행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사회 구성구석에 희망의 씨앗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설립한 ‘시나위’ 리더 신대철 “음악계 발전 위해 유통·수익 ‘사회적 기업’ 인증”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47)이 새로운 음원서비스 업체인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추진한다.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신대철은 “조합을 토대로 설립될 대안적인 음원서비스업체는 장기적으로 이익보다는 음악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철은 “음원 유통 방식이나 수익의 활용 방법 등 업체의 모델 자체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약 반년 정도 운영하며 예상대로 실적이 쌓이면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대철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 최저 시급이 5210원인데 가수 음원을 팔아 이 돈을 벌려면 965명이

다운로드를 해주거나 4만3416명이 스트리밍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이라는 대안 음원서비스 업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 19일 현재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추진위원회’ 페이지는 8762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대철은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의 장남이자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다. 1985년 시나위 1집 앨범 ‘헤비 메탈 시나위(Heavy Metal Sinawe)’로 데뷔한 그는 최근 KBS 2TV 밴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탑밴드(Top Band)’에서 심사위원과 코치를 맡았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원시장의 창작자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음원시장에 있어서 창작자와 생산자의 권익은 누가 지켜주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

-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도태호 △주택도시실장 손태락 △교통물류실장 맹성규 ◇국장급 인사 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정승희
- ◆교육부 △대변인 이기봉
- ◆농림축산식품부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김영수 ◇전보 △농림경제지원팀장 박종민 △수출진흥팀장 강혜영
- ◆환경부 ◇전보 △CBD당사국총회준

부음

- ▲김영진(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씨 부친상 = 18일 오전 11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5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 ▲정재일(인제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세일(정세일 비뇨기과의원 원장)·선희씨 모친상 = 17일 오전 0시 15분, 가톨릭대 수원성민센트럴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10-3322-1144

- 비기확단 팀장 김효정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찬갑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장 성지원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장 정진섭
- ◆국회 사무처 ◇이사관 전보 △의사국장 김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정창모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득
- ◆기상청 △기후과학과장 유희동 △수치모델관리관 이재병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이성원
- ◆동양생명 ◇선임 △이사대우 박승수



女프로골퍼 스킨트 길이의 경제학

더 화려하고 더 과감하게~ 팬도 기업도 미녀를 좋아해

“여자프로골프 대회장에는 볼거리가 또 하나 있다. 요즘은 미모와 실력을 갖춘 여자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골프 대회장을 찾은 남성 갤러리들의 환경같은 반응이다. 샷 대결만큼이나 선수들의 패션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몸매가 드러날 만큼 몸에 작달라붙는 팬츠는 물론 과감한 색상의 의류가 골퍼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스킨트 길이가 큰 관심사다.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짧아진 스킨트 길이는 기업의 후원과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어 더욱더 눈길을 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킨트 길이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클래식한 느낌으로 패션성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기업 후원도 많지 않았다. 박세리(37-KDB산은금융), 김미현(37), 박지은(35) 등 한국 최고의 스타플레이어

이나 외모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유영열 SBS골프 해설위원은 “제2금융권이 선수 후원에 적극성을 보였던 2000년대 중후반과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무리한 선수 후원보다 내실을 다지자는 분위기다. 많은 선수를 후원하기보다 일부 선수에게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여자선수들에 대한 후원은 눈에 띄게 줄었다. 새롭게 창단된 구단도 거의 없다. 일부 톱프로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해 끝마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유영열 해설위원은 “실력과 패션 감각을 동시에 갖춘다면 팬 서비스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골퍼선수는 골프 실력으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실력은 점점 퇴보하면서 외모(의상)만 화려해지는 선수는 스스로 상품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외모로 주목받기보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미니 스킨트... 스킨니 팬츠...

샷 대결만큼 뜨거운 패션 경쟁 남성 갤러리 몰려 흥행 효과도

2000년대 중반 '세리키즈' 등장에 제2금융권 등 기업들 후원 붐물 실력·외모 겸비한 여성골퍼 선호

어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명성을 날렸지만 삼성, CJ 등 몇몇 대기업의 특정 선수 후원을 제외하면 기업 후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여자프로골퍼에 대한 후원이 붐물인 터진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실력과 미모를 갖춘 '세리키즈'들이 대거 등장, 관중몰이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김하늘(26-KT), 김지영(23-LG) 등 실력과 미녀 골퍼들을 보기 위해 골프장을 찾는 남성 갤러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필드 위 꽃바람은 기업 후원으로 이어졌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여자프로골퍼 후원은 유행처럼 번져갔다. 후원 방법도 독특해서 지금까지 1-2명에게 집중 투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5-10명의 선수에게 분산 투자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구단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신규 구단 창단은 끊이지 않았다. 선수 선발 조건을 공개하는 구단은 없지만 대부분 실력과 준수한 외모를 지닌 선수로 실력만큼

한국대표팀 월드컵 슬로건

즐거라 대한민국

(Enjoy it, Reds!)



‘꿈은 이루어진다’(2002), ‘끝나지 않은 신화, 하나 되는 한국’(2006), ‘승리의 함성, 하나 된 한국’(2010), ‘즐거라, 대한민국(Enjoy it, Reds!)’(2014).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4 브라질월드컵 본선에 나선 32개국의 공식 슬로건을 13일 발표했다.

팀마다 후보 슬로건을 3개씩 제출받은 FIFA는 각국 대표팀 버스를 후원하는 현대기아자동차와 함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문구를 각 팀의 공식 슬로건으로 결정했다. 선정된 슬로건은 월드컵 기간 각국 대표팀이 이용할 팀 버스 옆면에 부착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후보 슬로건을 공모해 ‘즐거라, 대한민국(Enjoy it, Reds!)’, ‘끝나지 않는 대한민국(Never-ending Korea)’, ‘승리 그 이상을 향해(Over the Victory)’가 후보로 선정됐다. 그리고 이 가운데 ‘즐거라, 대한민국’이 공식 슬로건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과 조별리그 H조에 속한 국가들도 각국의 특색에 맞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러시아는 ‘아무도 우리를 잡을 수 없다(No one can catch us)’, 알제리는 ‘브라질의 사막 전사들(Desert Warriors In Brazil)’, 벨기에에는 ‘불가능을 기대하라(Expect The Impossible)’를 공식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개최국 브라질은 ‘마음을 굳건히 해라! 6번째 우승이 온다!(Brace Yourselves! The 6th Is Coming!)’로 우승의 의지를 드러냈고, 라이벌 일본은 ‘사무라이들아, 싸울 시간이 왔다!(Samurai, The Time Has Come To Fight!)’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한편, 지난 8일 대표선수 명단 공개로 확정된 흥명 보호는 ‘원팀, 원스피릿, 원골’을 구호로 사상 첫 원정 8강에 도전한다. 2014 브라질월드컵은 6월 1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한국은 6월 18일(러시아), 23일(알제리), 27일(벨기에)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아이스하키 평창행 ‘살얼음판’

고양 세계선수권 5전 전패... ‘3부 리그’ 강등 IIHF “세계랭킹 18위, 자동출전권 획득 무효”

한국 아이스하키의 올림픽 출전은 가능할 것인가. 5전 전패로 막을 내린 2014 고양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 1부 그룹A 대회는 한국 아이스하키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23위까지가파르게 순위를 끌어올리며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높여왔다.

세계랭킹 23위인 한국은 이 대회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2년 만에 3부 리그 격인 그룹B 강등이 확정, 개최국 자동출전권이 없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 당초 2승 이상의 성적으로 그룹A 잔류를 목표로 했지만 실망스러운 플레이로 전패 수모를 맞았다. 유럽은 물론 일본 선수들과도 현격한 실력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 아이스하키는 물론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도 난처한 입장이 됐다.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종목인 아이스하키에서 개최국이 불참할 경우 흥행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24년 프랑스 사모니 동계올림픽부터 2014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개최국이 아이스하키에 출전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까지는 개최국 자동 출전이 보장됐고, 이후에는 아이스하키 강국인 캐나다와 러시아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IIHF는 지난 2012년 한국이 세계랭킹 18위까지 끌어올릴 경우 개최국 자동출전권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은 2010년 세계랭킹 33위에서 2011년 30위, 2012년 28위, 2013년 25위에 이어 2014년

위는 자동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한국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IIHF가 한국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파렐 회장은 “세계적 수준 차이는 상당하다. 아시아에서는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인기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제대회 유치에 통한 경험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www.poliplaypark.com

놀면서 배우는 안전체험 놀이터

로보카 폴리

SEASON 3

플레이파크

2014.5.20(화) ~ 8.31(일)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기획 전시실 1층 1,2홀 문의: 02.6219.3311

주최 (주)키즈엔터테인먼트문화산업전문회사, ROI VISUAL 주관 (주)비전웍스글로벌 예매처 인터파크

© ROI VISUAL / EBS All rights reserved.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개발

6번 아이언 거리를 나는 이제 10번으로 친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2 ~ #11
공인클럽

☆ **뱅 롱디스턴스 Hybrid IRON**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더 가볍다.** 백스핀이 더 걸린다.
반발계수 0.902의 초고반발 아이언 개발 성공으로 모든 샷이 40yd 증가하여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20년 앞선 기술로 골프클럽의 역사를 선도하는

뱅 Longdistance

3년 연속 180% 고속 성장

- ☆ **470 DRIVER**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드라이버 비거리가 33yd 증가
- ☆ **WOOD-HYBRID** 신기술로 반발계수 0.902의 세계 최초 고반발 우드 개발 성공, 40yd 비거리 증가로 샷홀과 세컨샷이 편하고 투온이 아주 쉬워 골프가 재미있다

우드, 아이언도 24단계 샤프트 강도를 구비, 스윙스피드에 맞춰서 최상의 클럽 제공. 스판인 정확도 99.9% (타사 30~40%), Low C.P.M Low Torque 방향성 극대화
세계최고 고반발 + 세계NO.1 스프링효과 + 샤프트,그립,헤드의 다양한 스펙 + 최적화된 클럽 선택을 위한 스윙분석 피팅시스템 + 업계 최고의 차별화된 A/S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대표전화 : 1544-8070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Inside ▶▶



이통3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22면



사물인터넷(IoT) 시대 열린다 23면



1992년 국내에서 처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선보인 한국맥도날드는 350여개 매장 중 138개 매장을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맥도날드 100번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인 제주도 서귀포 DT점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맥도날드

주차 대신 주문... '드라이브 스루'로 간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부터 상품 수령이 가능한 외식 매장〉

Cover Story

#모처럼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떠난 K씨. 고속도로에 들어선 지 한 시간 남짓. 배가 고프다며 아이들이 보채기 시작한다. 곧 K씨는 주유소 건물 사이로 들어간다. 반 바퀴 돌자 스피커에서 '주문하시겠어요? 손님'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건물 앞으로 이동하니 종업원이 음식이 든 포장을 내민다. K씨는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다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자친구와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 나선 B씨. 한참 달려 바닷가에 다다르자, 커피 한 잔이 생각난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간판을 보고, 차를 몰았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해서 받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차에 앉아 일출을 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기니,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서울에서 경기도 광명으로 출·퇴근하는 P씨. 아침을 항상 거르기 일쑤였는데 최근에는 매일 출근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른다. 매일 아침 요기도 든든하게 하고, 주문하고 받기까지 3~5분 남짓에 불과해 지각하는 일도 없다.

'재미·빨리·편리' 3대 만족 외식매장
맥도날드 국내 첫선... 200여곳 성업
자동차 증가 편승 신소비문화 정착
패스트푸드점 'DT'시스템 적극 도입



2014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차에서 주문·결제하고 음식을 받는 풍경이 당황스럽지 않은 모습이 됐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차에서 주문을 하는 모습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그저 낯선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DT)'는 193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부터 상품 수령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한 외식 매장이다. 당시 미국은 자동차가 이미 일반화됐던 시기여서 사람들은 드라이브 스루의 편리함과 신속성에 열광했다.

국내에서는 한국맥도날드가 부산 해운대에 드라이브 스루 1호점을 오픈하며,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20여년의 시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에게 드라이브 스루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것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자동차 문화'가 발전하면서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국 매장 수는 200여곳에 달한다.

드라이브 스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맥도날드는 사업 초기 당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측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임대료와 좋은 매장 부지 여건 등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러나 자동차 등록대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자동차 문화에 대한 확산과 경제 발전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믿음이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1992년 당시 500만대에 불과했던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7년 1000만대를 넘어섰다. 2005년 1500만대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200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65명이 됐다.

국민 셋 중 한 명은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에서 많은 것을 즐기는 '자동차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15년 전국 자동차 대수는 20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족(族)들은 시간상의 제약과 주차 문제 등을 겪고 싶지 않은 만큼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열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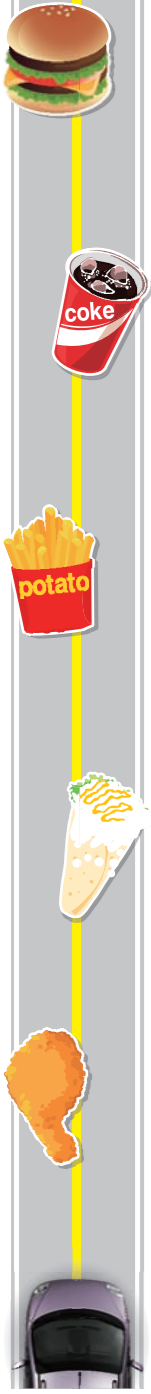
또 경제발전과 주 5일 근무제 영향으로 주말에 여행과 레저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영학에서는 드라이브 스루가 햄버거나 커피를 먹고 마시고 싶지만 시간과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를 포기하는 이들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한다.

드라이브 스루가 새로운 소비형태 문화로 정착되면서 업체들도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코리아 등에 이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등 커피전문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속속 오픈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업계 최초로 출사표를 던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로드숍에서 포기해야 했던 차량 이용 고객들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갈수록 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족을 매장에 자연스럽게 유입시키기 위해 새로 문을 여는 매장에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매출, 일반매장의 3배... 외식업계 'DT족' 공략 속도

(드라이브 스루)



화성주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인 스타벅스 경주보문호수점에서 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스타벅스 제공

전용 매장 늘린다

맥도날드 국내 138곳 운영 '최다' 매장 5곳 중 2곳 드라이브 스루 11곳 운영 버거킹 12곳 추가 계약 스타벅스·엔제리너스 등

커피전문점도 매장 확대 나서

“드라이브 스루(DT)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레저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자동차 'DT족(族)'이 새 소비 형태로 정착하면서, 외식업체들도 새롭게 여는 점포에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기존 로드숍에서 포기해야만 했던 '자동차족'을 끌어당겨 시장 침체를 넘어선다는 전략이다.

1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현재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곳은 한국맥도날드다. 맥도날드는 1992년 부산해운대에서 DT 1호점을 오픈하며 국내에 처음 드라이브 스루를 소개했다.

차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문화에 익숙지 않아 초기 반응은 신통치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맥도날드 DT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의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매장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교외에도 매장을 속속 오픈했다.

현재 맥도날드는 350여개 매장 중 138개 매장을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출은 일반 매장의 약 3배에 달한다. 드라이브 스루와 일반 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곳의 경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창출될 정도로 사업이 안정적이다.

롯데리아는 1997년 서울 명일DT점을 시작으로 현재 3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교통 요충지에 매장을 오픈했지만, 현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와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 운영 중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입점해 있는 매장이 명절, 연휴, 주말 등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간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며 “특히 명일DT점은 드라이브 주문의 편의성과 도

국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

*출처: 각 사 취합

기업명	첫 진출	매장 개수
한국맥도날드	1992년 부산 해운대 DT점	138개
롯데리아	1997년 서울 명일DT점	37개
버거킹코리아	2010년 대구만촌DT점	11개
엔제리너스커피	2012년 광주광천DT점	9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2012년 경주보문로DT점	8개
크리스피크림도넛	2014년 SK속삭DT점	1개

로변에 위치한 매장의 입지로 인해 전체 매출 중 드라이브 스루 부문이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는 앞으로 차량 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버거킹코리아는 2010년 5월 대구만촌DT점을 시작으로 2011년 2개, 2012년 5개, 2013년 9개 등 매장을 꾸준히 확대, 현재 11개(주유소 연계 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요소와 연계한 DT 매장의 일 평균 매출이 일반 매장보다 20% 이상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12개 매장의 계약을 완료하고 오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커피전문점과 도넛 프랜차이즈도 드라이브 스루 대열에 합류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흡인식 매장, 복합매장 등 차별화된 매장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오픈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2012년 6월 광주광천 DT점을 시작으로 경주 DT점, 왜관 DT점, 광주우암 DT점 등 총 9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주점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살린 한국 구조를 채택, 지역 랜드마크로서 사랑받고 있다.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편의성도 높아 드라이브 이용률이 2012년 24.4%, 2013년 44.7%로 증가 추세다.

스타벅스는 8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오픈한 경주보문 호수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경주보문 호수점은 매장 오픈 한 달 만에 2만명이 방문했는데, 이는 초기 다른 매장 오픈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기록”이라며 “다른 매장의 개장 초기 매출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올해 2월 동자구 허석동에 도넛 업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관계자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DT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isa@

'이투데이 교육센터'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락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셋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1, Yeouidaebang-ro 62-gil, Dongjak-gu, Seoul, Korea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내년까지 매장 70% 드라이브 스루로”

한국맥도날드 조 엘린저 대표

주변 편의시설 연계 '만능 매장'으로
나들이 고객 위해 교외지역에도 오픈



한국맥도날드 조 엘린저(사진) 대표는 “앞으로 2015년까지 전체 500개 매장의 약 70%를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로 삼고, 다양한 협업 형태의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들이 맥도날드를 경험하고 이와 함께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맥도날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플랫폼을 가능케 하는 '만능 매장'으로 만들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의 배달 서비스인 맥딜리버리(McDelivery),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운영, 커피메뉴 맥카페(McCafe) 등 맥도날드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일반 매장보다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에 따라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동시에 인기를 얻고 있다. 도심 직장인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해 줌으로써, 교외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편리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다. 맥도날드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여가 문화를 반영해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확대를 시작해 현재 350여개 매장 중

138개를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8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맥도날드가 드라이브 스루 문화 알리기에 나선 것. 조 엘린저 대표는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매장의 약 40%를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하고, 자동차 이용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린저 대표는 더욱 진보된 형태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기반으로 SK에너지·GS칼텍스 등 주유소와도 손잡고 협업 매장 30여개를 선보였으며, 패스트푸드 유니클로와 함께 용인 마북에 매장을 여는 등 진화된 협업 매장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다람 기자 zing@

커피 마시러 왔다가... 식사·쇼핑·주유하고 가지요

업체별 '점포 차별화' 전략

스타벅스 세계 첫 '화상 시스템' 화면 통해 바리스타에 직접주문

롯데, 외식브랜드 4개 한자리에 맥도날드 바로 옆 유니클로 위치

엔제리너스 경주점 '한옥 구조' 지역 랜드마크로 방문객에 인기

드라이브 스루(DT)가 일반화되면서 브랜드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눈맞춤을 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 주유소 등 다른 형태의 점포와 협업, 점포 차별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자동차 고객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화 전략으로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첨단 화상(Face-to-Face) 주문이 주목받는다. 국내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설치된 화상 주문은 고객과의 눈맞춤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타벅스 철학과 얼굴을 마주하는 한국적 정서를 모두 담은 시스템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협력회사 IT 기술진과 연구개발

을 통해 42인치 대형 스마트 패널을 POS시스템(판매시스템)과 통합해 설치했다. 고객들은 바리스타들과 손짓도 교환하며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고, 주문내역과 결제금액을 실시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업종과 함께 시너지를 노리는 브랜드도 많다. 주유소와의 협업이 대표적이다. 롯데리아 판교점, 맥도날드 신월SK점·동수원GS점 등을 방문하면 식사와 주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롯데리아 명일DT매장은 TGIF를 제외한 롯데리아 4개 브랜드가 모인 복합매장 형태다.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나뚜루팝 아이스크림을 타일 형태로 구성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따라 식사 후 디지털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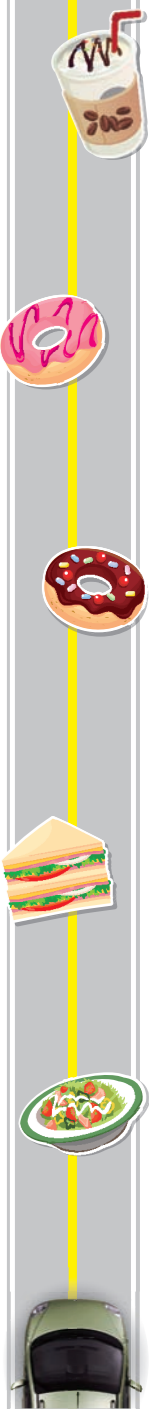
패션과 손잡는 경우도 있다.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서울 양평동 SK주유소에서는 맥도날드와 함께 아웃도어 네과 상설 할인매장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맥도날드가 2012년 문을 연 경기도 용인 마복점에는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이 같이 있다.

매장 차별화 전략도 눈에 띈다. 엔제리너스가 2012년 7월 오픈한 경주DT점은 한국의 전통적 미를 살린 한옥 구조로 지어졌다. 주변 자연경관과 한옥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다. 통유리로 테라스를 만들어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며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DT 매장이 늘면서 단순히 DT 서비스만으로는 고객의 발길을 잡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객 방문과 체류시간을 늘려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람 기자 zing@



엔제리너스 경주DT점은 한옥 구조로 지어져 전통적 한국의 미를 살릴 뿐만 아니라, 통유리로 테라스를 만들어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며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 엔제리너스커피



'이색매장' 눈에 띄네

신라 콘셉트 인테리어에 '좌식석' 마련

스타벅스 '경주보문호수점'

오픈 한달 만에 2만명 돌파



스타벅스 경주보문호수점 전경. 사진제공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대표적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인 경주보문호수점이 오픈 4개월 만에 지역 내 인기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스타벅스는 2012년 경주보문호수점을 시작으로 현재 총 8개 DT 매장을 운영 중이며, 경주보문호수점은 경주 지역의 두 번째 매장이다.

경주보문호수점은 1호점인 경주보문로점을 방문했던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 색다르게 꾸며졌다. 앞서 경주보문로점은 "대기시간이 길다", "앉을 공간이 부족하다" 등 방문 고객 불만이 한 달에 평균 1-2건씩 접수됐다.

스타벅스 점포개발, 인테리어 실무팀에서는 이러한 고객 요청을 적극 반영해 경주보문관광단지 에 조망이 좋고,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콘셉트를 개발했다.

이렇게 탄생한 경주보문호수점은 전체 120여 석 규모의 테이블을 갖췄으며, 한국식 좌식 공간을 보강해 2층에는 신발을 벗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좌식석을 마련했다. 3층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

도록 테이블과 의자의 높이가 조절이 가능한 좌식석을 배치했다.

더불어 매장 각 층 내부 인테리어에 스토리를 부여했다. 1층에는 신라시대 문화재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커피 기기 및 원두를 전시하는 특별 공간을 조성했다. 2층 내부는 편안한 좌식공간으로 기와 패턴의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이 반영됐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은 황룡사 9층 석탑을 양각화해 이미지 공간을 조성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경주보문호수점은 지난 1월 오픈 한 달 만에 2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다. 이수정 경주보문호수점장은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곳인데도 다른 매장의 개장 초기 매출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도넛 업계 최초 오픈... 커플세트 인기

크리스피 크림 'SK흑석DT점'

두달 만에 이용률 10% 올라



크리스피 크림 도넛 SK흑석점. 사진제공 크리스피크림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2014년 2월 도넛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을 오픈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SK흑석DT점은 142㎡(43평)의 규모로 차 안에서 주문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하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가장 인기 메뉴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상징하는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더즌으로 일반 매장과 동일했다. 두 번째로 잘나가는 메뉴는 차량 이동 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플세트'. 커플세트는 도넛 2개와 음료 2잔으로 구성된 메뉴로 일반 매장에 비해 40% 이상 인기가 높다. SK흑석DT점 드라이브 스루 이용률은 오픈 첫달 19.8%에서 4월 말 기준 30%를 차지하며 드라이브 이용률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한 고객들도 도넛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DT 매장

을 선보였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맞춰 DT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SK흑석DT점 진출과 관련해 도넛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흑석DT점 성공 여부에 따라 도넛 시장 전체에 DT점 오픈 바람이 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던킨도너츠, 미스터도넛 등 도넛 업체들이 SK흑석DT점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도넛 DT가 햄버거와 커피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들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혈액순환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나이 60세?

늦기 전에, 써큐란!

- ✓손발 차고 저림
- ✓기억력감퇴
- ✓만성피로



광고심의필 : 1220-1500
*인타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시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시작되는 혈액순환장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면 손발 차고저림이나 기억력감퇴, 무기력증과 만성피로 등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계통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혈액순환장애, 나이가 들수록 혈액의 흐름은 절제 관리하십시오.



- 서양산사 혈류량 증가
- 멜리사엽 혈액순환 촉진
- 은행잎 혈관보호 효과
- 마늘유 콜레스테롤 저하

복합성분 혈액순환개선제 **써큐란**
문의전화 : 02-920-8625

양은 무한... 기본제공+하루 2GB 넘으면 속도제한

이통3사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살펴보니...

이동통신 시장을 둘러싼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필승카드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데이터 과부하와 이통사의 수익성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일단 시장 반응은 뜨겁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를 중심으로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규와 기존 가입자의 60% 이상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신규 가입자의 30%가량이 해당 요금제를 택했다. 특히 KT의 경우 20~30대 비중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제한 요금제로 갈아타려는 소비자라면 꼼꼼하게 통신사별 전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통사마다 무제한 요금제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를 파헤쳐 본다.

이동통신 3사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출시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요금제 (실 납부금)	8만원(6만2000원), 8만15000원(6만17000원)	8만원(6만1250원), 8만5000원(6만15000원), 10만원(7만5000원)	7만9000원(6만1000원), 12만9000원(9만9000원)
음성	무선 무제한 (유선100분까지)	무선 무제한(유선300분까지), 유무선 무제한	유무선 무제한
문자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데이터 제공조건	매일 2GB까지 속도 제한 없이 제공(2GB 초과시 3Mbps 속도로 제어)	무제한(기본 월 8GB), 무제한(기본 월 12GB), 무제한(기본 월 16GB)	무제한(기본 월 10GB), 무제한(기본 월 25GB)
특징	데이터 아무리 써도 모바일PTV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제공	월 8만원 이상 음성 무제한 고액 자동 업그레이드	유무선 음성통화 모두 무료
부가서비스	앱 1만530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무료	무한 멤버십 혜택과 Btv 모바일 무료	유선 인터넷과 결합하면 8000원 추가 할인



◇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싶다면? = 이통3사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KT다. KT는 '완전무한 79(7만9000원)'와 '완전무한 129(12만9000원)'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중 79요금제가 가장 저렴하다. 이 요금제는 매일 10G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고, 이를 소진하면 매일 2GB를 추가 제공한다. 기본료는 7만9000원이지만 24개월 약정할 경우 1만8000원을 할인해줘 실제 납부 금액은 6만1000원까지 떨어진다.

SK텔레콤의 경우 LTE전국민무한75(7만5000원) 요금제가 저렴하다. 해당 요금제는 안심 옵션을 추가해야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심 옵션은 5000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8만원이다. 하지만 24개월 약정 시 1만8750원을 할인해줘 실무담금은 6만1250원이다. 이 요금제도 한 달 데이터 제공량은 8GB로 제한돼 있다. 이를 초과하면 매일 2GB씩 추가 제공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LTE8 무한80(8만원)'요금제가 저렴하다. 기본료가 월 8만원이지만 24개월 약정할 경우 매일 1만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결국 실무담금은 6만2000원으로 소액이지만 이통3사 중 가장 비싸다.

◇ 요금만 보면 곤란...제공 서비스 따져봐야 =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이통사별로 1000원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비싼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사와 달리 월 기본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루에 2GB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속도를 제한한다. 하지만 제한 속도가 3Mbps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고화질 영상을 보는 데 무리가 없다.

SK텔레콤과 KT 요금제의 경우 할당량을 다 채웠을 경우 하루 2GB를 추가 제공한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면 망 상황에 따라 속도를 제어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때문에 이용시간과 장소에 따라 속도가 LG유플러스보다 느릴 수도, 빠를 수도 있다.

음성통화 조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요금제 2종 모두 무선에 한해 무제한이다. SK텔레콤은 LTE전국민무한85 이상 요금제에서만 유무선 모두 무제한이다. KT는 완전무한79 요금제부터 유무선 음성통화를 모두 무제한 지원한다.

서비스 조건도 업체마다 다르다. 일단 모바일TV, 앱, 음악 등 유료 부가서비스 사용이 잦은 이용자라면 일반 요금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에 유리하다.

3Mbps로... 사용엔 큰 무리 없어
실제 요금 KT 6만1000원 '최저'
서비스 함께 비교해야 알뜰 선택

"8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 1%뿐
저가 요금제 사용자도 혜택 줘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도 제기

SK텔레콤은 TV, 다시보기, 스포츠 경기 실시간 중계 등을 지원하는 'B tv 모바일' 월정액 상품과 국내 최대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프리' 옵션(월 9000원·VAT 별도)과 가입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사용한 데이터의 50%만 차감해 잔여 데이터가 사실상 2배가 되는 24시간 할인권 옵션을 선보였다. 두 옵션상품은 데이터 무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3G 저가요금제 가입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LTE8 무한85 요금제는 모바일 TV인 U+HDTV, 프로야구 전용 앱 U+프로야구, 클라우드 서비스 U+Box 등 총 1만5300원 상당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려 시각도 존재 =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무작정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통신 시장을 주관하는 정책부서 관계자들은 해당 요금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LTE 가입자 중 8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전체 가입자의 1%뿐"이라면서 "기존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비싼 요금제에만 혜택을 집중해 통신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부임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해당 요금제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무제한 요금제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동영상 보는 게 건전한 사회인지, 아니면 못 보게 하는 게 건전한지 얘기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제한 데이터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근 기자 nova@

앞다퉈 출시했지만... 트래픽 증가·망 과부하 어떡하나

속도 느려지고 접속 불량 가능성
이통사 "데이터량 예측... 문제없다"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무제한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망 과부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는 제한이 없는 무제한이 맞다.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속도에는 제한이 있다. 이통3사가 정한 월별, 일별 특정 제공량을 넘어서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통3사 모두 일정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을 적용하며, 제한될 시 속도는 3Mbps로 동일하다. 요

금제 종류에 따라 SK텔레콤은 8GB·12GB·16GB를, KT는 10GB·25GB를 매일 기본 제공한다. 이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하루에 2GB씩 추가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데이터 속도가 기본 제공량과 같이 부여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3Mbps로 떨어진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월 단위 기본 제공량 대신 하루 2G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부여한다. 하루 2GB의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하면 속도가 3Mbps로 감소하게 된다. 이통사들은 3Mbps면 영화나 모바일TV 등 동영상 콘텐츠 감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차이는 테더링을 활용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테더링은 휴대전화로 무선 인터넷을 쓰게 해주는 것이다. KT는 기본 제공량에 하루 2GB씩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하루 2GB까지 테더링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매일 기본 제공 데이터량 이내에서만 쓸 수 있어 테더링 사용에 가장 제한이 많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대 이상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나눠 쓰는 '데이터 셰어링'도 제약이 따른다. SK텔레콤과 KT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제공

하고,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나눠 쓰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통3사가 데이터량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트래픽 때문이다. 데이터가 무한정이다 보니 해비유저들의 악용과 자연스레 트래픽 폭증이 우려된다. 트래픽이 몰리면 망에 과부하가 걸려 LTE 속도가 느려지거나 심할 경우 접속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통3사는 데이터 부정 사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데이터를 제한하고 있을 뿐 무제한 요금제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

았다. 이통사별로 구축하고 있는 LTE 망이 현재 가입자의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수철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CFO)은 지난 달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증가하는 트래픽 규모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주파수, 네트워크 용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당사의 경영계획도 데이터 증가를 예측해 수립했기 때문에 특별히 트래픽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로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구 대체

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HAURI

'통신' 포화... 'IoT' 新시장 개척하라

〈사물인터넷〉

이통3사 차세대 먹거리 창출 팔걸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일명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리고 있다. IoT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이 접목돼 있어 영화 속 일이 현실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의 조작 없이 환경에 따라 기계가 알아서 움직여주니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이 같은 환경을 보다 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차세대 IoT를 활용한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화 상태인 이통 시장에서 뺏기고 빼앗는 치킨게임 대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SKT, ETRI와 손잡고 솔루션 개발

에너지 절감·산업생태계 변화 주도

KT, 오토모티브·헬스 등 역량 집중

다양한 산업군과 융·복합 사업 추진

LG U+, 이노베이션 센터 주축 상생협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사업 진행

SK텔레콤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IoT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은 각자가 보유한 IoT 관련 서비스·솔루션, 인프라, 핵심 원천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SK텔레콤과 ETRI는 앞으로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스마트 IoT 플랫폼간 상호 연동·차량·자산·농업 분야 우선 협력 △IoT 통신기술 공동 개발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급격히 성장해 예상되는 IoT 산업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차량 제어, 에너지 절감, 독거노인·반려동물 안심 서비스, 농업 지원, 물류 관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의 경우 '클라우드 베이스(Cloud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 빌딩·병원·호텔 등에 적용해오고 있다.

클라우드 베이스는 건물 내 분산돼 있는 조명,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등을 센서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앙관리센터에 연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빌딩의 전력·에너지 사용량의 실시간, 사무실의 근무 인원과 쾌적도 등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클라우드 베이스에 이어 SK텔레콤은 공장·산업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클라우드 베이스(Cloud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 클라우드 베이스가 빌딩·병원·호텔 등에 적용되며 냉난방·온수·조명 등 에너지 소비 부분 효율화에 특화했다면, 공장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베이스는 각 사업체별 생산공정을 사전에 자세히 분석해 맞춤형 처방을 내린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추후 혁신 중심의 사업으로부터



플랫폼 중심으로 IoT 사업의 구조 전환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커머스, 오토모티브, 유틸리티, 시큐리티, 일렉트로닉스, 헬스 위주의 시장에 IoT 역량을 집중한다.

KT는 오토모티브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현대차 대형트럭에 '블루링크 트럭&버스 with 올레서비스'를 적용했다. 그동안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블루링크 서비스를 대형트럭과 버스와 같은 상용차 전용으로 개발해 현재자동차 대형트럭인 '트라고 엑시언트'에 이 기능을 최초로 탑재한 것. 관리자는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태를 파악해 실시간 업무지시가 가능하다. KT의 IoT 기술로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KT 기업통신사업본부 채종진 전무는 "ICT를 기반으로 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등으로 연결 사회를 지향한다"며 "IoT를 통한 다양한 산업군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LTE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주축으로 IoT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개관한 이

노베이션 센터는 이후 IoT분야 이용 건수가 4000여건(누적)에 이르는 등 150여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주도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다양한 모델 집행을 적용한 모형을 개발하는 등 IoT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솔루션아이티, 에스앤비와 LTE망을 이용해 재고 파악은 물론 오류확인, 상품 매출 증대까지 꾀할 수 있는 IoT 자판기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IoT를 활용한 마을방송 서비스 '안심마을zone'과 RFID(전자태그)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스마트 크린', 'U+LTE 차량영상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스마트스크린 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최첨단 기술과 환경이 융합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RFID 기반 M2M(사물지능통신)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를 구축해 주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쓰레기량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40개 지자체에 1만5000여대의 장비 공급 및 통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근 기자 nova@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사물인터넷



알아서 전기 끄고 건강상태 체크하고 초연결사회...상상이 현실로

이통3사가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는 IoT가 점차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생활속 물건마다 특정한 기능을 갖추고, 그 정보들이 무선망을 통해 서로 공유되는 것이 IoT의 핵심이다. 이통3사가 국내 IoT 산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것도 공중 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무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IoT산업이 가져올 일상생활의 변화상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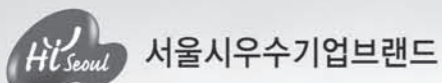
직장인 권태성(30)씨는 어제 과음을 한 탓에 알람시간 맞추는 것을 잊었지만 마음은 편하다. 스마트폰이 그날 그날 상황에 맞게 알아서 알람을 울려주기 때문이다. 오늘은 소나기로 도로가 막힌다는 뉴스를 접한 스마트폰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울린다. 알람이 울릴과 동시에 부엌에서는 어제 밤 오븐에 넣어뒀던 1회용 스프가 데워지고 있다. 권씨는 오늘도 똑똑한 기기를 덕분에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다.

권씨는 업무 중 배가 살짝 아프다. 30분 뒤 오전 회의가 시작되는데 큰일이다. 어제 마신 술로 인해 배탈이 난 것 같다. 다행히 회사 건물에 설치된 센서와 연결된 인터넷 덕분에 수시로 몇 층 어떤 화장실이 비어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13층에서 근무하는 권씨는 20층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13-20층 사이 화장실을 찾아야 동선이 짧아진다. 다행히 18층 화장실 두번째 칸이 비었다는 정보가 뜬다. 회의 1분 전에 도착 완료.

오전에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권씨. 오늘 따라 기획안이 잘 써지지 않는다. 며칠 뒤 임원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하다 보니 긴장을 한 탓이다. 문득 오늘 오전 출근하면서 전기는 제대로 켜졌는지, 가스는 안전하게 차단됐는지 걱정이 된다. 급하게 출근한 게 화근이다. 그러다 권씨가 출근함과 동시에 집안의 모든 전기기기가 스스로 꺼지고 가스도 차단된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안심이다. 퇴근할 때까지 기획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기획안 작성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됐다. 6시 30분 회사 인근 병원에 예약한 권씨는 오후 20분가량 퇴근 준비를 한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예약 과장 없이 바로 전담 의사를 만난다. 그 어떤 검사 없이 바로 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회사 내에서 신고하던 슬리퍼 덕분이다. 슬리퍼에 탑재된 센서가 발걸음을 분석해 건강 신호를 분석해서 곧바로 의사 컴퓨터에 보내 놓은 덕분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퇴근한 권씨. 똑똑한 세탁기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 출근하면서 세탁기에 스마트폰을 갖다뒀을 뿐인데 퇴근 시간에 맞춰 세탁을 끝내냈다. 게다가 맞춤형 세탁코스도 알아서 들어가 옷감이 상하지 않게 세탁이 잘 됐다. 또 냉장고는 밥하기 귀찮은 맘을 어떻게 알았는지 화면에 남은 식재료와 유통기한, 이 재료를 활용해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권씨는 자동으로 데워진 목욕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모두 가신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유미 기자 jsc508@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Q. 당신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왜? 어째서! 냉장전용 유산균 을 선택해야 하는가?

1. 건강전문가 약사들이 선택한 냉장 유산균(현 가맹약국 2,500호 돌파)
2.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타민하우스가 만드는 유산균은 믿을 수 있으니까
3. 품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장용성 캡슐로 장까지 살아가는 프리미엄 유산균 550

- 국내유일 550억 CFU 생균 투입!
- 12종 유산균 +아연+셀렌
- 전 과정 냉장유통 시스템
- 공기,습기차단 PVDC 특수포장



우리가족 생생 유산균

- 1캡슐 300억 CFU투입
- 식약처인증 안전성 높은 8종의 균주
- 식물성 캡슐 사용
- 물과 함께 섭취



우리아이 생생 유산균

- 1포 60억 CFU투입
- 배변활동을 생각하는 우리아이 제품
- 無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 이유식 분유에 타서 먹는 유산균



Probiogut 은 건강기능식품기업 비타민하우스의 냉장유통 유산균 전문 브랜드입니다.
 ★냉장유통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비타민하우스를 꼭! 확인하세요.

회생절차 종결에도... 악재도 없는데... 왜?

〈보루네오〉

〈와이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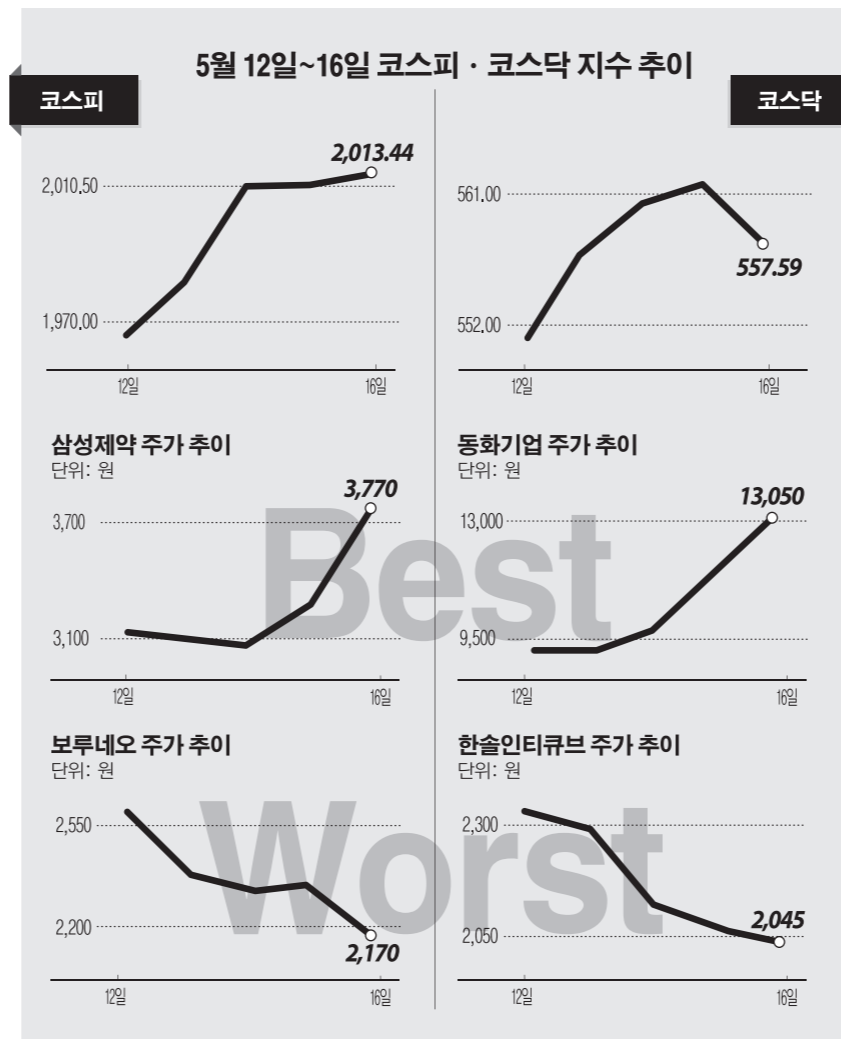
베스트&워스트 5월 12~16일

#5월 셋째주(12~16일) 코스피는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마감했다. 특히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24포인트(0.16%) 오른 2013.44에 마감하며 이를 전 기록했던 연고점(2010.83)을 갈아치웠다. 지난주 외국인은 1조3106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531억원과 1조319억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은 지난 16일 소폭 하락하며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밀려 전날보다 4.16포인트(0.74%) 하락한 557.59로 마감, 560선을 방어하지 못했다. 지난주 개인은 641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3억원과 53억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제약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 후 추진 중"... 52주 신고가 경신 = 1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제약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제약은 32.75% 상승, 주가는 2840원에서 3770원으로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제약은 지난 9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한국거래소로부터 현저한 상황 변동에 대한 조화공시 요구를 받았다. 이에 삼성제약은 다음 거래일인 12일 답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회사채발행, 유상증자-외부차입 등)을 회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제약 주가는 이를 연속 소폭 하

는 보루네오였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하락률은 17.18%로 이 기간 주가는 2620원에서 2170원으로 떨어졌다. 보루네오는 9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다. 이어 12일에는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 지정도 해제됐지만, 13일과 16일에 각각 7% 넘게 떨어지며 주가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주가 하락률 2위를 기록한 동부건설(-16.63%)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장중 한때 207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삼성제약' 경영권 매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 니켈가격 상승 조짐 '황금에스티' 강세...23% 급등 김준기 회장 '동부건설' 유상증자 불참...16% 급락

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각 기대감 속에 16일에도 상승가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연출했다. 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한 황금에스티는 지난 한주간 23.26% 상승했다. 15일 약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이 기간 동안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황금에스티는 최근 세계 최대 니켈 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 생산국인 러시아마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불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 상승률 3위를 기록한 조선선재(22.50%)는 시장에서 특별한 호재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14일을 제외하고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6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주가가 5만 8800원을 기록,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보루네오, 법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도 17% 하락 =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

실시된 동부건설과 동부제철의 유상증자에 김 회장은 여타 임원들과 달리 유상신주 취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어 롯데관광개발은 주가 하락률 3위를 기록하며 지난주에만 15.07% 하락했다.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롯데관광개발은 13일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소폭 하락한 채 이날 장을 마감했다. 이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정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14일과 15일에는 각각 6% 넘게 급락했다. 이어 더존비즈온(-13.49%)은 1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하락, 주가 하락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존비즈온은 1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억 9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7억 8900만원으로 2.3%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21억8700만원을 기록해 65.8% 감소한 것으로 집계 집계됐다.
강인호 기자 kangjh@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5월 9일	5월 16일	
삼성제약	47	2,840	3,770	32.75
황금에스티	96	5,590	6,890	23.26
조선선재	74	48,000	58,800	22.50
현대리퍼트	476	22,550	27,600	22.39
신일산업	140	2,260	2,740	21.24
화성알앤에이	199	25,600	30,800	20.31
티스	27	11,450	13,700	19.65
지에스인스트루	21	1,510	1,790	18.54
웅진홀딩스	134	2,145	2,530	17.95
한국석유	55	72,000	84,700	17.64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5월 9일	5월 16일	
디올메디바이오	54	2,425	2,185	-9.90
윤촌화학	310	13,900	12,500	-10.07
로엔케이	114	2,175	1,925	-11.49
한국총합기술	70	7,220	6,370	-11.77
경남기업	103	3,280	2,870	-12.50
일진디스플	334	13,550	11,800	-12.92
더존비즈온	323	12,600	10,900	-13.49
롯데관광개발	361	17,250	14,650	-15.07
동부건설	104	2,495	2,080	-16.63
보루네오	49	2,620	2,170	-17.18

※자료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5월 9일	5월 16일	
동화기업	200	8,700	13,050	50.00
웰메이드	44	2,900	4,070	40.34
큐로컴	121	1,050	1,390	32.38
STS반도체	169	2,080	2,700	29.81
코리아나	83	1,605	2,075	29.28
폴리비전	61	2,700	3,445	27.59
파루	38	4,910	6,250	27.29
영남제분	57	2,195	2,730	24.37
젬팩스	670	21,100	25,900	22.75
케이엔더블유	41	6,900	8,460	22.61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6일 시가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5월 9일	5월 16일	
에프알텍	41	4,065	3,630	-10.70
세우테크	31	3,490	3,060	-12.32
웰크론한텍	65	4,190	3,665	-12.53
현대통신	32	4,230	3,690	-12.77
동신건설	42	5,790	5,050	-12.78
테스나	85	14,350	12,400	-13.59
주성엔지니어링	186	5,220	4,500	-13.79
엠펜	66	5,190	4,400	-15.22
와이엠씨	51	6,200	5,190	-16.29
한솔인티큐브	28	2,450	2,045	-16.53

※자료 : 에프앤가이드

◇동화기업, 흑자전환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 52주 신고가 경신 = 1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코스닥 시장에서 동화기업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동화기업은 50.00% 상승, 주가는 8700원에서 1만3050원으로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화기업이 15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4억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52억원, 당기순이익은 73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 호조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심리가 물리면서 주가는 15일과 16일 이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주가 상승률 2위를 기록한 웰메이드는 지난 한주간 40.34% 상승했다. 웰메이드는 소속배우인 이종석씨가 출연한 드라마

◇한솔인티큐브, 기관투자자 '팔자' 단기자입금 증가 소식에 16.5% 하락 =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한솔인티큐브였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하락률은 16.53%로 이 기간 주가는 2450원에서 2045원으로 떨어졌다. 한솔인티큐브는 12일 5% 가까이 떨어지며 하락 반전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말 한솔인티큐브에 투자한 템피스트투자증권이 최근 들어 보유 지분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4일에는 7% 넘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와 함께 공시를 통해 운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단기로 차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주가는 추가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0.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가 하락률 2위를 기록한 와이엠씨

'동화기업' 1분기 영업이익 94억 흑자전환 50% 꺾음 '닥터 이방인' 中 인기에 '웰메이드' 후끈...상승 2위 '한솔인티큐브' 기관 팔자에 차입금 증가까지 16%↓

'닥터 이방인'이 중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5일과 16일 이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가 상승률 3위를 기록한 큐로컴(32.38%)은 시장에서 특별한 호재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16일을 제외하고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3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15일에도 12%나 오르면서 상승폭을 끌어올렸다. 이어 STS반도체는 29.81% 상승을 기록, 주가 상승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1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15일과 16일에는 각각 5%, 12% 넘게 상승했다. STS반도체는 15일 장중 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6억9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리아나(29.28%)·폴리비전(27.59%)·파루(27.29%) 등도 25% 넘게 상승했고, 이어 영남제분(24.37%)·젬팩스(22.75%)·케이엔더블유(22.61%) 등의 순이었다.
강인호 기자 kangjh@

(-16.29%)는 시장에서 특별한 악재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13일을 제외하고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다. 특히 16일에는 10% 넘게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이어 엠게임은 주가 하락률 3위를 기록하며 지난주에만 15.22% 하락했다. 12일 하락 반전하며 7% 넘게 주가가 빠진 가운데 이어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연출했다. 엠게임은 15일 공시를 통해 2012년 5월 발행한 25억원 규모의 BW를 만기 전 취득했다고 밝혔다. 내부 보유자금으로 사채의 권면총액과 이자를 합한 26억6891억원을 지급,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났지만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이어 주성엔지니어링(-13.79%)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하락, 주가 하락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테스나(-13.59%), 동신건설(-12.78%), 현대통신(-12.77%), 웰크론한텍(-12.53%), 세우테크(-12.32%), 에프알텍(-10.70%) 등도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호 기자 kangjh@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라!

팩트 기반 CSR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기업의 조직원들과 공유된 비전·전략 아래 고객과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 프로세스를 고객과 사회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은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원을 인풋으로 시스템에 투입하고 성과를 낸다. 또한 그 성과·측정에 따라 피드백을 받아 개선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풋을 투입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의 정석 CSR
이유택 저 | 값 15,000원

●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중! 다부수 구매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Tel 02-3786-0184 / Fax 02-3786-0107 / njh@kmac.co.kr

kMAC

모바일게임株 '신작' 따라 주가희비

CJ E&M·게임빌·선데이토즈 '상승'
엔씨·조이맥스·액토즈소프트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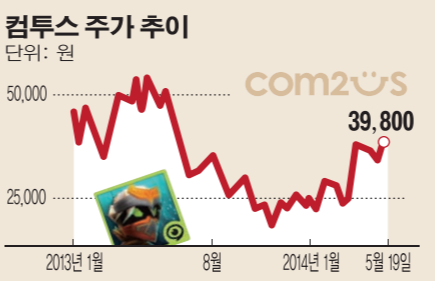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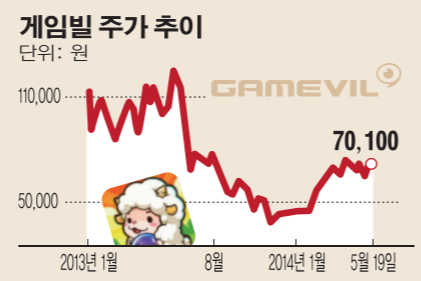
모바일게임주의 실적에 따라 희비(喜悲)가 교차되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어 1분기 실적발표와 2분기 실적전망을 확인하는 한편 종목별로도 차별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CJ E&M, 게임빌, 선데이토즈 등은 호전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엔씨소프트, 조이맥스, 액토즈소프트, 웹젠, 위메이드, NHN엔터테인먼트 등은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영향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CJ E&M은 4만8000원, 게임빌은 7만100원에 마감했다. 연초대비 각각 52%, 5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선데이토즈는 204%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던 엔씨소프트는 1만7500원(8.5%) 내린 18만8500원에 마감했다. 연초대비 23% 하락세다. 같은 기간 NHN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25%의 하락세를 보였다. 실적 발표 이후 종목별로도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모바일게임업체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시적인 '넘버(Number)' 착시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해외 서비스 환자의 효과 등으로 실적 악화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에

종목	영업이익	증감률	주가 수익률
엔씨소프트	445.20억	▼19.8%	▼23%
CJ E&M	115.50억	▲171.3%	▲52%
게임빌	37.65억	▲21.6%	▲56%
와이디온라인	4.46억	▲0.5%	▲3%
선데이토즈	175억	▲409.3%	▲204%
넥슨지티	84.70억	▼14.9%	▲12%
조이맥스	-8.94억	적자전환	▲52%



대해서 제한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1분기 실적을 놓고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삼국 현대증권 연구원은 "신작 실적에 따라 모바일게임주들의 주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모바일게임시장에서의 경쟁은 과열되고 있는 반면 신작의 히트 주기는 짧아지고 있어 기존 흥행 작품만 만 아니라 게임 장르를 넓히면서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통한 수

익성 개선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작 출시가 붓물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신작의 흥행률이 지속 여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2분기 실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중국 진출로 모바일게임시장의 성장성이 재조명되면서 CJ E&M, 위메이드 등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절' HMC·삼성증권 민원평가 '우수'...키움은 '낙제'

최근 수년간 민원 발생 평가에서 HMC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저조한 등급을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의 민원발생 평가 등급(5개 연도) 평균은 1.60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20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HMC투자증권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1등급을 받았다. 2010년과 2012년, 2013년에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민원평가는 금융원이 처리한 회사별 민원 건수, 금융사 해결 노력과 영업 규모를 고려해 금융사의 민원 관련 점수를 1~5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최근 8년(2006~2013년)간 삼성증권은 평균 1.63등급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삼성증권은 2009년 3등급을 받은 것을 빼고는 해마다 1~2등급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3.00등급)와 대신증권(3.00등급), 메리츠증권(3.25등급), 교보증권(3.25등급), 한국투자증권(3.25등급), 하나대투증권(3.50등급), 하이투자증권(3.63등급), 동양증권(3.75등급)은 3등급대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키움증권은 평균 4.75등급으로 가장 나쁜 점수를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각각 4.13등급, 4.20등급(5개 연도)으로 민원 평가 등급이 낮았다.

이미정 기자 lmj@

증시 회복세에 제값 묻는 '低PER·PBR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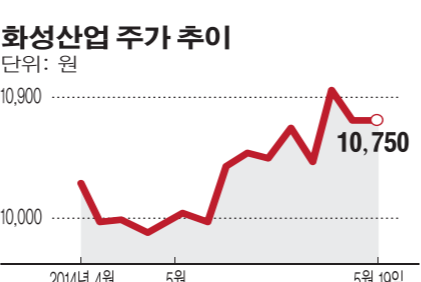
저평가 가치주 투자매력 ↑ 화성산업 울들어 78% 상승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 상승 반전을 시도하면서 가격 매력이 높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각각 10배와 1배 이하인 종목은 75개였다.

PER이란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PER이 낮으면 기업의 주가가 수익성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는 의미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고 풀이한다.

임삼국 현대증권 연구원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성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기업



에 투자해야 한다"며 "최근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PER 8.19배, PBR 0.54배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산업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화성산업은 지난해 말 대비 무려 79.74%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석유(7.22배, 0.50배)와 신성에프에이(6.89배, 0.75배)도 70%가 넘는 주가 상승했다.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경농(9.51배 0.79배) 신성이엔지(4.88배 0.84배), 건설화학(7.23배 0.79배), 부산산업(6.65배 0.84배), 고려산업(9.37배 0.66배), DRB동일(5.28배 0.91배), 동아에스텍(7.67배 0.82배), 원림(5.89배 0.59배), 세아제강(6.64배 0.70배), 동국실업(3.91배 0.49배) 등도 4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이다.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도 있다. PER 2.43배, PBR 0.40배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원양 자원의 경우 울들어 주가가 무려 39.74% 빠졌으며, 이외에도 대한유화, 비상교육, 현대제철, 웅진홀딩스 등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도 이달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원양 자원의 경우 지난 16일 지난달 말 대비 7.81% 상승했으며 웅진홀딩스는 15% 넘게 올랐다.

문선영 기자 moon@

증시 레이다 외인vs기관 힘겨루기... 2000 안착 관심

이번 주(5월 19일~23일)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코스피 지수 2000선 안착 여부에 쏠려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다. 지난주에만 무려 1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것.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이아람 NH농협증권 연구원 "최근 순매도를 나타냈던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신흥국 투자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들이 재차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추가 매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관은 여전히 우러스럽다.

기관은 이달 초부터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지수가 2000에 안착해가던 지난 주 후반부터 매도폭을 키우기 시작하고 있다. 기관은 지난 한 주 2531억원의 순매도였다.

백운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펀드판매에 따른 투신 매물 출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개선 효과가 일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변수로는 22~25일 열릴 유럽의회 선거와 22일 중국 HSBC PMI제조업 지표 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특히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선영 기자 moon@

건설 상장사, 상반기 공급 계약 최대 작년보다 3배 증가... 조선·항공 부문은 '반토막'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건설사들의 단일판매-공급 계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선·항공 부문 업체는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떨어졌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공시내용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법인의 단일판매-공급 계약 총액은 28조 6249억원으로 전년 동기 19조 4066억원 대비 47.50% 급증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를 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건설 부문의 계약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련 계약 총액은 17조 7170억원으로 지난해 5조 8109억원보다 204.89% 증가했다.

이어 일반 제조, 시스템, 용역제공, 도소매 등이 포함된 기타 부문의 올해 계약금액이 5조 4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05% 늘었다.

반면 조선(항공) 관련 계약 총액은 5조 41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0조 2874억원에 비해 47.37% 급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건설부문, 기타부문의 계약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단일판매-공급 계약 총액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이 14일 현재 기준 이라크 Karbala Refinery Project 등 5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5조 5862억원 규모의 계약 금액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중공업이 계약금액 3조 9426억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3조 9196억원)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어 현대건설(2조 118억원), 대우건설(1조 9615억원), 삼성물산(1조 4625억원), 현대로템(1조 985억원), 대림산업(1조 374억원), 한국항공우주(6897억원), STX중공업(5774억원) 순이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저자 부자아빠 (정재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워렌버핏처럼 가치주를 담아라!



500% 금등주 차트기법
금등 상한가 매수전략



7만 원 상당 인터넷주식 강좌쿠폰 제공



매주 수, 일요일 밤 8시 무료 방송진행
(www.88tv.co.kr)

구입처 : 교보인터넷, YES24, 인터파크, 전국유명서점
총 판 : 송인서적

부자아빠의 주식특강 및 추천주 무료로 받기(스마트폰 시청가능)



부자아빠 주식학교

검색



삼립식품, 식자재 유통사업 떴낸다

7월 푸드서비스앤드로지스틱스 설립 “식품안전·전문성 제고...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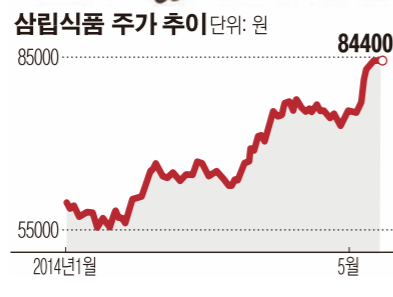
삼립식품이 오는 7월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을 떴내 독립 법인을 신설한다. 식자재 유통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립식품은 식품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신설회사 '삼립푸드서비스앤드로지스틱스'를 설립한다.

삼립푸드서비스앤드로지스틱스가 진행하는 사업은 식품유통으로,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설비와 물류관리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급식 및 외식업체 등에 식료품 재료 및 관련물품을 물류배송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식품유통부문의 매출액은 1113억4100만원을 기록하며 삼립식품 전체 매출의 8%가량을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삼립푸드서비스앤드로지스틱스의 발행 주주 총수는 삼립식품에 100% 배정된다. 삼립푸드서비스앤드로지스틱스의 자본금은 30억원이며, 준비금은 112억원이다. 대표이사는 황재복 밀다원 대표이사 및



파리크라상 전무로 내정됐다.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삼립식품이 식품유통사업을 분할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최근 식자재 유통 시장은 외식, 급식용 식자재 도매 유통 시장을 위주로 위생 관리 및 식품안전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기업형 식자재 업체의 참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립식품은 체계적인 물류시스템과 물품 구입 원스톱서비스를 갖춘 신설 법인을 설립,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사업부문을 전문화해 시장 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해 사업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립푸드서비스앤드로지스틱스는 대규모 브랜드 생산 및 판매회사인 삼립식품이 구매력과 소싱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통 단계 효율화, 거래무명성 확보, 식품안전 확보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삼립식품은 식품유통사업을 분할한 뒤 제빵사업, 식품소재사업, 프랜차이즈사업 등 기존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공시 돋보기

‘남매의 난’ 대동공업 지각공시

투아이스시스 지분취득 2년만에... 특수관계인 여부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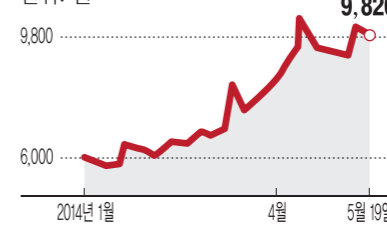
대동공업이 투아이스시스 지분 취득 사실을 2년만에 공시를 통해 알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투아이스시스를 김준식 회장의 특수관계인로부터 편입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제 지분취득한 시점은 2012년 4월이라는 것. 대동공업은 2년이 넘도록 이를 알리지 않다가 금융원이 지적을 하자 이제서야 지분공시를 냈다. 대동공업이 공시를 미룬 것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놓고 고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은 혈족관계를 의미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를 ‘공동보유자’라고 정의한다.

김 회장과 김은좌 대표는 지난 2012년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김은좌 대표는 김형철 대동기업 부회장(김준식 회장 형)과 어머니 박경 여사와 함께 대동공업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복사 가져bones을 신청한 뒤, 대동공업 지분 16.69%를 보유

대동공업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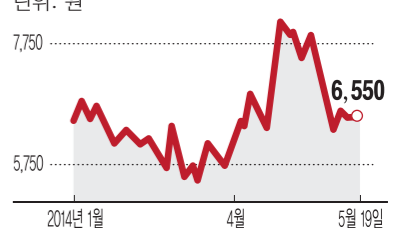


한 박영욱 대표와 연대해 김 회장을 견제했다. 이후 누나 김은좌씨는 관련 소송을 자진 취하했으나 2013년 박 대표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소액 주주연대가 집중투표제를 요구하는 등 경영진과 주주간의 대결 양상으로 이어졌다.

대동공업은 2012년 말 투아이스시스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지했다. 경영권 분쟁 후 대동공업은 투아이스시스 편입을 고민하다 이번에 특수관계인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두 회사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결정했다.

황윤주 기자 hyj@

코렌 주가 추이



구글까지 공급처 확대 실적전망 환해진 코렌

카메라렌즈 제조사인 코렌이 구글 글라스 시제품에 이어 일반판매에도 제품을 공급기로 결정했다. 코렌은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고 있다.

19일 코렌관계자는 “구글 시제품에 이어 일반판매 제품에도 카메라 렌즈를 공급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렌은 구글에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태성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본격 판매기로 함에 따라 코렌의 펀더멘털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현지에서 구글 글라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게 약점”이라고 덧붙였다.

코렌은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5 영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코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2.3분기에도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시에서는 코렌을 비롯해 우전엔한 단, 알에프텍, 유아이엘, 서원인텍 등을 갤럭시 수혜주로 꼽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롯데쇼핑, 삼일 ‘포항 땅’ 매입

(코스닥 상장사)

롯데쇼핑이 포항구 상도동에 롯데마트 신규점포를 출점하기 위해 필지를 사들였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16일 삼일의 포항시 남구 상도동 453-9번지의 24필지를 128억7198만원에 매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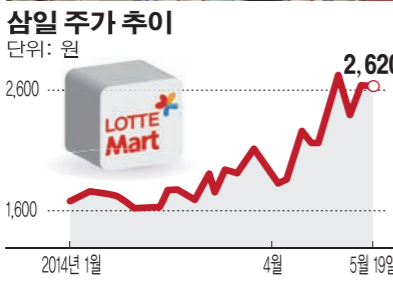
롯데쇼핑이 이번에 사들은 필지는 당초 삼일이 지디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롯데쇼핑은 지디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필지를 승계받았다.

삼일은 지난해 3월 지디와 상도동 필지의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삼일은 3공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기존 물류터미널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도동 24필지를 지디에 128억원에 처분했다.

계약금과 함께 1, 2차 중도금이 지급돼 64억원의 잔금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상도동 필지를 지디로부터 사들이게 된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16일 3차 중도금 32억1799만원을 삼일에 납부하며 잔금



32억1799만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 처분 예정일자는 11월 28일이다.

당초 필지를 매입한 지디가 잔금을 납부여력이 없자 롯데쇼핑에서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일 관계자는 “지디와 상도동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롯데쇼핑에 승계됐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사들인 필지를 롯데마트

128억에 사들여 롯데마트 출점 삼일 ‘터미널부지도 매각 검토’

출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과 LOI(의향서)를 체결했다.

코람코 등은 포항 남구 상도동 472-1번지 일대 대지면적 2만2356㎡(약 676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3만2650㎡(약 9870평)의 유통업무시설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은 “이번에 사들인 필지를 롯데마트 출점에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잔금만 남은 상황”이라며 “최근 마트 출점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언제 출점하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은 상도동 필지 외에도 600억원 규모의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포항화물자동차터미널부지 매각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에 롯데쇼핑이 사들인 땅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포항화물자동차터미널 부지도 롯데쇼핑이 사들일 것이라 얘기가 돌고 있다.

이미정 기자 imj@

‘큰손 주부’ 장바구니에 ‘조광II’ 넣었다

장상자씨, 울들어 지분 2.06%P 늘려 5.6% 보유

큰손 주부가 코스닥 상장사 조광II 투자에 나섰다. 이 회사는 울들어 16% 가량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서 사는 주부 장상자씨는 지난 15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조광II 주식 46만7661주(지분율 5.6%)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했다. 평균 취득 단가는 주당 3210원으로 장씨가 투자한 금액은 15억원이 조금 넘는다.

장씨는 지난해 말 기준 조광II 주식 29만1783주(3.54%)를 보유하고 있었다. 울들어 지분을 2.06%포인트 늘리면서 장씨는 조광II 지분을 5% 이상 보유,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광II는 특수밸브 전문 생산업체로 창립 초기부터 성장기까지는 부산 지역을 비롯해 경남·경북 지역으로의 판매 시장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수요대상을 목표로 국내 29개 대리점망을 구축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로는 동남아를 비롯한 수출파트너를 발굴, IMF 당시 일시적인 매출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조광II 최대주주 측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48.90%로 최대주주인 임만수 대표가 16.25%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임 대표의 형제인 임창수씨와 임전수씨가 각각 9.91%, 7.83%를 보유, 5% 이상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ADOLFO DOMINGUEZ

Hyundai Department Store: Apgujeong 3F 02.3438.6059 · Mokdong 3F 02.2163.1345 · Daegu 4F 053.245.2431
www.adolfo Dominguez.com

“
오늘 답지?
우리집에  **여**
응원하자!
시원 시원하게
 ”

삼성전자 **S'**골드러시
 승리의 여름 프로젝트

※ 행사기간: 2014년 5월1일 ~ 6월30일



EVENT 1 화면도 혜택도 시원시원하게!
커브드 TV 최대 5억 상품권 증정

'14년형 138cm 이상 TV를 구매(~6/20) 후 응모(~6/27) 하시면 대한민국 8강진출 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50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EVENT 3 새출발을 위해 시원시원하게!
혼수/이사 패키지 구입시 최대 56만 포인트

자유롭게 조합 가능한 패키지로 3품목 이상 구매 시 최대 56만 포인트 (혼수/이사 프리미엄 패키지 기준)를 드립니다.

EVENT 2 공기도 선물도 시원시원하게!
에어컨 구입시 제습기 증정

스마트에어컨 Q9000 김연아 스페셜 퀴/엣지 행사모델 구매시, 인버터제습기(11L)를 함께 드립니다.(~5/31)

EVENT 4 온 가족을 위해 시원시원하게!
베이비케어 패키지 구입시 최대 10% 포인트

베이비케어 가전(아가사랑 플러스, 모션싱크, 침구 청소기, 공기청정기, 인버터제습기, 바이러스닥터) 패키지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포인트로 드립니다.

※ 행사 모델 및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 해당 이벤트란 참조
 ※ 본 행사는 행사 참여점내 행사 모델에 한하며, 매장에 따라 혜택 증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캐시백 등)